metro®
메트로 2015년 1월 23일 금요일 제3142호 www.metroseoul.co.kr

Global p/04



의족 신고 3400m 오르다

Entertainment p/18



청순 여배우들 매력 발산

'제2의 김군' 못 막는다

美 천문학적 예산에도 테러단체 예봉 꺾는 수준
김군 사건 정보망에 구멍…"테러방지법 급선무"

한국은 IT강국답게 정보기관의 사이버검열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왕재산(지하혁명조직) 사건'에서 IT업체대표의 이적행위를 밝혀냈을 정도다. 하지만 이슬람국가(IS)행이 추정되는 김모(18)군에게는 속수무책이었다. '빅브라더'의 굴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보력이 '제2의 김군' 역시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파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테러단체의 특성상 어느 나라든지 정보력으로 막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미국이 국토안보부를 만들어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소규모) 테러단체의 사기를 죽여 예봉을 꺾는 효과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알카에다와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테러단체의 활동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안보위협이 국가로부터 왔다. 적대국가의 행위는 조직과 절차가 있어 예산 수립이나 집행과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가 누출된다. 정보력이 먹혔던 이유다. 테러단체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로 불린다. 3~4명의 행위는 정보가 샐 겨를이 없다. 김군과 같은 독자적 행위자는 말할 나위가 없다. 염 전 1차장은 "최근 미국 부통령 자택에 총격을 가한 테러리스트도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였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검열 뿐만 아니라 밀착감시도 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대공감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8국에서 이 역할을 맡았고 이명박정부 이후 1차장이 대공과 해외파트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도 김군의 일은 몰랐다"며 "정보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대북감시망이 아닌 테러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 전 1차장은 가장 시급한 대응수단으로 '통신감청'을 꼽았다. 그는 "알카에다·IS·혁명·전사 등의 키워드가 통신과정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다"며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핸드폰 감청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했다.

염 전 1차장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면 미국은 사전영장 없이 감청이 무한정 가능하다"며 "부작용 논란이 있지만 미국인들 사이의 콘센서스(합의)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테러 의심자에 대한 감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얼마를 들이든 조직을 아무리 바꾸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사법부 판결 규탄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서 한국진보연대 집회에 참석한 김재연(왼쪽 두 번째), 김미희(왼쪽 세 번째) 전 의원이 사법부 판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환율에 발목 잡힌' 현대차 "내년부터 새로운 양적성장"

지난해 현대차가 환율에 발목이 잡혀 4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을 냈다.

제네시스와 쏘나타 등 신차를 앞세워 전 세계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드는 실속 없는 장사를 한 것이다. 원화 강세와 신흥국 통화약세, 초엔저 등 환율 관련 악재가 겹친 게 컸다.

◆ 환율 악재에 실적 '후진'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은 89조2천563억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어나며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네시스와 그랜저, 쏘나타 등 신차 판매가 늘어난데다, 중국 3공장과 터키공장을 증설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난 덕분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2% 줄어든 7조5천500억원으로 2010년(5조9천185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영업이익률도 9.5%에서 8.5%로 뒷걸음쳐 IFRS 도입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현대차의 실적이 후진한 것은 원화 강세와 신흥국의 통화 약세 영향이 컸다.

실제로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13년 달러당 1,092.8원에서 지난해에는 1,055.2원으로 3.4% 하락했다. 원화가 강세면 판매대금을 원화로 바꿨을 때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도 폭락하면서 실적에 부담을 줬다. 루블화가 지난해 50% 이상 하락하면서 현지 매출과 이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자동차 판매가 10.3% 감소한 가운데 현대차는 17만9천631대를 판매하며 전년보다 1%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현대차의 쏠라리스는 11만4천644대가 팔려 러시아 자동차업체 라다의 그란타에 이어 베스트셀링 모델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런 선방에도 현대차의 러시아 매출은 2조3천840억원으로 전년(2조7천510억원)보다 13.3%나 급감했다.

브라질 헤알화 가치도 크게 떨어지면서 현대차의 브라질 시장 매출도 5.1% 감소한 2조2천630억원에 머물렀다.

판매관리비가 많이 늘어난 것도 수익성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글로벌 업체간 판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관비는 11조5천800억원으로 4.0% 늘었다.

특히 미국시장의 경우 엘란트라(아반떼) 등의 모델 노후화로 딜러들에게 주는 판매장려금(인센티브)은 대당 1천377달러에서 1천728달러로 약 25% 상승했다.

◆ "올해 투자 11조2천억원… 양적 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

현대차는 올해도 판매 여건이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시장도 관세인하와 환율 효과로 경쟁력이 강화된 수입차업체들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해 판매 목표를 작년보다 1.8% 증가한 505만대 수준으로 잡았다.

현대차의 이원희 재경본부장(사장)은 22일 실적 발표회에서 "올해는 중국 4, 5공장을 조기 착공해 선제적인 성장기반을 만들고 브랜드 가치 함양, 품질개선 등 질적성장을 완성하는 해로 만들 것"이라며 "아울러 내년부터 새로운 양적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에 설립될 4공장을 올해 2분기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완공한 뒤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칭시에 들어서는 5공장은 올해 3분기에 공사에 착수, 2017년 1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김종훈기자 fun@



김정은 암살영화 '인터뷰' 베를린영화제에 출품?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다룬 가상의 코미디 영화 '인터뷰'가 미국에서 일제히 개봉했을 당시 영화관 이벤트 모습. 22일 북한 외무성은 '인터뷰'가 베를린영화제에 출품된다는 풍문에 발끈해 제작사가 있는 미국과 영화제가 열리는 독일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인터뷰'는 출품되지 않고 단지 일부서 상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南北정상, 붉은광장에서 만나나

오는 5월 9일 러시아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기념행사에서 남북정상이 만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승전기념행사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5월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경합을 하는 것이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검토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토'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했다.

전날 오후 외신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져 이 같은 발표는 주목을 받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모스크바의 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 제1비서의 초청 수락 여부에 대해 "(평양으로부터) 첫 번째 신호 형식의 긍정적 답이 왔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김 제1비서의 참석이 박 대통령의 참석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의 참석이 확정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보도를 보면 '긍정적 답을 보냈다'라고 표현됐다. 이쪽에서 서둘러 입장을 발표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제1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 등, 만날 필요가 있지만 만나기 어려운 국가정상들을 만날 수 있고 외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남북정상 간 짧은 접촉이나 약식 정상회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생사확인 등 남측의 관심사안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재벌 정조준… 박영선·이언주 '작심 입법'

'이학수법' 박영선, 상장 차익 챙긴 삼성家 정조준
'조현아법' 이언주, 재벌 '채용리스크' 족쇄 채우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두 여성 국회의원이 재벌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작심하고 입법에 나섰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이언주 의원이다.

22일 새정치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을 준비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진의 주식 상장 차익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거의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법안 성안을 위해 최근 다른 의원실에 있던 정책보좌관을 직접 영입해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입된 정책보좌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이학수법' 제정 작업을 도맡아 해오다 이번 주부터 출근했다는 전언이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통해 최근 삼성SDS 상장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법'이 발효되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시세차익 환수 대상에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내부에서 소급적용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전언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조현아법(이른바 땅콩회항 방지법)' 입법을 준비하는 동시에 심의 과정에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조현아법'은 재벌가 임원의 위법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는 게 목적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이 총수 일가의 임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정형 이상의 위법행위로 기소될 경우 즉각 정직 또는 면직 처분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회사의 배상청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른바 '채용 리스크'라는 족쇄를 재벌가에 채우겠다는 이야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13년 7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상장회사의 사업보고가 재무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개선, 근로조건·노사관계·환경오염·지역사회 공헌활동·저출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가을학기제 공론화" 22일 청와대에서 실시된 '2015 국민행복 업무보고'를 앞두고 전날 브리핑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 부총리는 "비용과 기대이익 등 연구를 해서 올해 안에 국민 앞에 자료로 제공하고 (가을학기제) 공론화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설치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는 "감시 시각보다는 쌍방향 대화를 통해 호흡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기능(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다"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명품 소총'이라더니…

K-11 결함 또 발견… 납품 전면 중단

우리 군이 명품무기로 자랑하던 K-11 복합소총이 계속해서 결함이 발견돼 군의 무기 품질 논란이 일고있다. K-11소총의 납품은 전면 중단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말 군에 납품 예정이던 K-11 소총 가운데 1정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보증 검사 시험을 했다"며 "총기 1정으로 모두 6000발을 발사하는 시험에서 4000여발을 발사할 때 사통장치에서 균열이 생기고 나사가 풀리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K-11 소총은 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을 장전하는 소총으로 주·야간 정밀사격이 가능하고 적 밀집지역이나 은폐·엄폐된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분대 편제 개인화기다.

이 관계자는 "일단 제조상의 결함 가능성이 있어 납품을 중지했다"면서 "사통제조 업체에서 균열과 나사 풀림 현상을 규명하고 있고 이 규명 작업이 끝날 때까지 납품은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함은 지난해 11월 공개 품질시연회 직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K-11 소총은 최근 2차례의 사고로 전력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23일 업체 관계자와 국방과학연구소·국방품질기술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윤아기자 yoona1@

'세금폭탄' 논란 안 끝났다

'세수부족 뭘로 채우나' 논쟁에 책임론까지
여야 '증세없는 복지' '부자증세·법인세' 공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백기투항에도 불구하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환급액이 빠져나가는 만큼 비게 될 정부의 곳간을 무엇으로든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여야는 '증세없는 복지'나 '부자증세·법인세' 등 해묵은 논쟁을 다시 시작했다.

급격한 민심 이반을 우려해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압박성 설득 작업을 벌인 끝에 21일 세금폭탄 보완책 소급 적용 방안을 내놓은 새누리당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자평을 내놓고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든 것을 파악해 일단 보완책을 제시했다"며 "3월 말 모든 그림이 나오면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니 그때까지 국민들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야기는 달랐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압박하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연말정산 개편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이춘석 의원은 "법인세를 이명박정부에서 낮추지 않았냐"며 "(낮춘) 법인세를 계속 고수한다면 그 세금을 어디서 충당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돈을 걷게 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현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증세 문제도 결국 공론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일각에선 소급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자중지란 조짐도 엿보인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은 "소급 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5월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비슷한 상황이 한번 더 연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조현정기자 jhj@

北도 "고종 독살설이 맞다"

"왕이 되고부터 무얼 먹어도 쓴 맛이 났다. 헌데 가비(커피)의 쓴 맛은 오히려 달게 느껴지는 구나."

고종황제 독살사건을 그린 영화 '가비'에서 고종의 대사다.

고종이 독살됐다는 이야기는 한국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신빙성을 얻고 있다. 22일 여기에 북한도 가세했다.

북한은 이날 '고종 황제 서거 96주기'에 즈음해 '고종 독살설'을 주장하며 일본을 비난하고 나섰다.

고종 독살설은 1919년 1월 21일 사망한 고종이 일제의 사주로 독살됐다는 '설'이다. 고종은 오전 6시께 덕수궁에서 사망했다. 한약, 식혜, 또는 커피 등을 마신 뒤 이들 음료에 들어있던 독 때문에 사망했다는 주장이다. 시신을 염했던 사람의 증언이 논거다. 사후 1~2일만에 시신이 심하게 부풀었고 이가 다 빠져 있는 등 정상인보다 훨씬 빠르게 부패가 진행됐다는 증언이다. 독극물 중독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평소 고종의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또한 2009년 미국 하와이 국제학술회의에서 공개된 일본 궁내성(宮內省) 관리의 일기에는 고종이 해외에 독립을 호소하려 하자 일본이 이를 막기 위해 1919년 1월 21일 고종을 독살하려 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아기자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Альпинист на
покорил верш

Победа. 7 января новосибирец совершил восхождение на высоту более 3,4 тыс. м над уровнем моря и получил звание «Альпинист России»

metro Portugal


Emirates eleita melhor companhia aérea

Aviação. Estudo da eDreams, maior agência de viagens online mundial, tem por base 90.000 opiniões dos clientes. Emirates, a única não europeia no top 10, Swiss e Lufthansa fazem o pódio.

최고의 항공사는 '에미레이트 항공'

메트로 포르투갈은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 이드림스(eDreams)가 최근 발표한 '2014 최고의 항공사'에 에미레이트 항공이 뽑혔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항공기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에미레이트 항공은 시설(4.44점), 기내 엔터테인먼트(4.48점), 수화물 서비스(4.30점), 고객 응대 서비스(4.40점), VIP 라운지(4.23점) 등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랭킹 1위에 올랐다. 스위스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 에게안 항공, 터키 항공 등 유럽계 항공사들이 10위권을 휩쓸었다.

metro Brazil


Diárias sob

Turismo. Levantamento mostra alta maior entre cid
em São Paulo, diárias estão entre 4% e 8% mais car

호텔 숙박요금 125%나 올라

메트로 브라질은 호텔 검색 사이트 트리바고(trivago)를 조사한 결과, 브라질 숙박 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북동부의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인 포르투 세구루는 이번 달 평균 숙박비가 419 헤알(약 1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에 비해 125%나 오른 가격이다. 마세이오의 평균 요금도 지난해 12월의 243 헤알(약 10만원)에서 올해 1월 390 헤알(약 16만원)로 상승했다. 이같은 숙박요금 상승세는 대중교통요금이 오르는 등 물가가 들썩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metro Hongkong


習總常委職加薪全萬一

청렴 위해 월급 올려라 시진핑 주석 62% 상승

시진핑 중국 주석의 월급이 62% 상승했다. 과거 중국 지도부가 낮은 임금을 고수해온 것과 다른 행보다.

21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월급이 7020 위안(약 122만원)에서 1만1385 위안(약 198만원)으로 62% 증가했다. 이는 중앙정치국상무위원으로서의 급여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월급은 다른 여섯 명의 위원들과 같다. 모든 공무원들도 이번 임금 조정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진핑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국가 주석을 겸하고 있어 두 종류의 월급을 더 받는다. 2012년 7월 기준 후진타오 전 주석의 군사위원회 주석 월급은 2만1119 위안(약 368만원)이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임금은 국가공무원 임금제도에 따라 지불된다.

중국 국무원이 2006년 발표한 임금표에 따르면 후진타오 전 주석의 국가주석 월급은 3000 위안(약 52만원)이다. 이에 근거해 시진핑 주석의 당·정·군 직위 임금이 모두 62% 상승했다면 총 월급은 약 5만 위안(약 871만원)이 된다.

과거 중국 지도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매우 낮은 임금을 고수해왔다. 1955년 군사위원회 주석이자 1급 행정직이던 마오쩌둥의 월급은 600 위안(약 10만원), 정치국 위원으로 3급 행정직이던 덩샤오핑의 월급은 500 위안(약 8만원)이었다. 다만 거주, 식비, 의료,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됐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 주석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위 공무원의 임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장윤희기자

의족 신고 3400m 정복 '의지의 사나이'

두 번의 큰 수술에도 도전… 바이애슬론·산악 선수로도 활동 중


막심 쿠브리츠키가 최근 의족을 착용한 채 3400미터의 알타이 산에 오르고 있다. 쿠브리츠키는 한쪽다리를 절단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애슬론과 산악선수로도 활동해 '의지의 사나이'로 불리고 있다.

장애를 딛고 해발 3000m가 넘는 산을 정복한 '의지의 사나이'가 화제다.

메트로 모스크바는 노보시비르스크에 살고 있는 막심 쿠브리츠키가 최근 의족을 착용한 채 3400m의 알타이 산을 정복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브리츠키는 몇 해 전 불의의 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왼쪽 다리를 절단한 장애인이다. 조금만 무리를 하면 쇼크가 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 하지만 이 같은 고난도 산행도 쿠브리츠키의 도전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체력 단련을 시작했다.

쿠브리츠키는 "사고로 두 번의 큰 수술을 했지만 결국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해야 했다"며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보시비르스크 첨단 보조기제작 업체의 도움으로 등산에 적합한 특수 의족을 만들 수 있었다"며 "노보시비르스크 주 장애인 바이애슬론과 산악선수로도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쿠브리츠키는 도전에 나설 때 안전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매번 몸 상태를 체크하고 조심한다.

쿠브리츠키는 "알타이 시에 있는 세베로 추이스크 산을 등반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며 "장애인 선수에게 무리한 등반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무거운 배낭은 짊어지지 않는 등 최대한 의족이 다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피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 말하는 쿠브리츠키의 소식을 접한 러시아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러시아의 진정한 산악인' '의지의 사나이' '큰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응원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가리나 멜리 기자·정리 이국명기자

금융사 대포통장 전년比 증가

"지난해 4만5000여 건 발생… 은행권 중심으로 확대"

금융사기의 필수 범행 도구인 대포통장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피싱사기를 기준으로 한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모두 4만4705건으로 전년보다 16.3%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빙자 사기 등과 관련한 사례를 포함할 경우 8만4000건에 달한다.

대포통장 증감률은 2013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2.1%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2013년 하반기(78.1%), 작년상반기(14.2%)와 하반기(17.9%)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은행권의 증감률 확대다.

실제 전체 대포통장중 은행권 비중은 2013년 41.7%에서 2014년 하반기 60.9%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76.5%까지 늘어나며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기간 새마을금고는 4.5%에서 14.1%로 늘었다.

이에 반해 농협단위조합과 우체국,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 비중은 53.5%에서 21.3%로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농협단위조합과 우체국, 증권사에서 대포통장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감독과 지도가 강화된 이후 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며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신규 개설 보다 기존 통장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대포통장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이 23.9%에서 58.4%로 대포통장 발생이 확대됐다. 반면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비중은 2013년 17.8%에서 지난해 하반기 2.5%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포통장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은행과 새마을금고 연합회 등에 원인 분석과 개선책을 긴급히 마련하고 전사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장기 미사용 통장의 ATM기 거래시 현금인출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의심계좌 일시 지급정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1년간 신규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공동으로 홍보협의회(가칭)을 구성하고 대포통장 불법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교육을 집중 실시할 것"이라며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으로 대포통장 명의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인 만큼 응하지 말고 통장을 건넸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market index <22일>

코스피	1920.82	(-0.41)
코스닥	578.42	(-5.92)
금리(국고채 3년)	2.06	(+0.01)
환율(원·달러)	1084.70	(+0.70)



"잔 없이 와인 드세요" 22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소용량 와인 7종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이용 인·허가 최대 60일 단축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공장을 세우거나 건축물을 짓는데 따른 인·허가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최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기 전 약식 심의를 하겠다는 것.

이때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심의를 마친 뒤에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인·허가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인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일괄협의' 제도도 생긴다. 현재는 토지를 이용하기에 앞서 시·군·구 협의를 진행한 뒤 시·도 협의를 다시 거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일괄협의에서 기간 이견이 발생할 때는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한다.

3차례 이상 합동조정회의에서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며, 지자체들은 이 결과에 따라야 한다.

최종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한다.

지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토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이들 위원회 전부 혹은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통합심의위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에서는 또 지자체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해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돕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각종 관련 정보 제공, 처리 결과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지적이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남기고 통폐합했다"며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지금은 120일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60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외환은행,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문광찬 외환은행 암스텔담 지점장(사진 오른쪽)이 조셉 히라푸토(Joseph D. Giarraputo) 글로벌파이낸스誌 발행인(사진 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환은행 제공

삼성물산 사우디 건설 톱50에 선정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물산이 중동에서 인정받는 건설사로 뽑혔다.

삼성물산은 중동지역 건설전문지 컨스트럭션 위크 아랍어판에서 꼽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계 톱 50'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톱50에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건설사·시행사·협력사 등이 포함됐다.

삼성물산은 지난 1978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해외지점을 신설했다. 당시 삼성건설이라는 이름으로 1979년 4월 킹파이잘 메디컬시티 병원아파트 공사를 수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공공청사·종합병원·공항 등의 공사를 수행하며 사우디 시장에서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특히 2011년에는 4000MW급 가스복합화력 발전소인 쿠라야 프로젝트를 수주해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은 수도 리야드 킹압둘라 금융가 중심에 알라지 뱅크 본사와 42층 높이의 타다울 타워 건축공사, 사우디아라비아 첫 지하철망이 될 리야드 지하철공사, 1700MW 규모의 라빅2 민자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월세가구 전세 앞질러

전국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가구의 비중이 5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보다 4.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9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지난해 기준 전·월세 거주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55.0%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세 비중은 2006년 45.8%에서 2008년 45.0%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2010년 49.7%, 2012년 50.5%로 상승해 지난해 55.0%로 최고점을 찍었다.

수도권의 지역별 월세가구 비중도 2006년 37.9%에서 2008년 37.3%로 빠졌다가 2010년 42.9%로 크게 오른 뒤 2012년 44.1%, 지난해 45.0%로 커졌다.

집을 소유한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보유율은 58.0%,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53.6%로 나타났다.

자가보유율은 2006년 61.0%였으나 매년 하락해 지난해 58.0%까지 낮아졌다. 자가점유율 역시 첫 조사에서 55.6%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박선옥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삼성화재, 해외사업실 신설

지난해 상반기 해외사업 순익 198억… 전년비 2.7배 증가

삼성화재가 해외사업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해외사업실을 신설했다. 일반본부와 기획실 등에 흩어져 관리하던 해외사업 업무도 일원화했다.

최근에는 지난 1998년 진출했다가 1년 만에 철수한 영국 로이즈 시장의 재진출도 모색했다.

이 회사는 최근 로이즈 시장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재보험사 '코리안리'에 로이즈시장 진출에 대한 내용을 문의했다.

로이즈 시장은 300년 이상된 글로벌 보험시장의 중심지다. 개별 보험업자들은 보험인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을 하면서 같은 위험에 대해 개별 보험업자 간 전혀 다른 인수조건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로이즈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이 회사는 선진 보험시장의 언더라이팅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또한 타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도 마련할 수도 있다.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해외사업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이 회사는 미국, 중국, 인도 등 11개국에 법인·지점·사무소를 각각 7개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 해외사업의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은 198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이 기간 싱가포르에서 69억원, 베트남 53억원, 중국 42억원, 유럽 28억원 가량 순이익을 올렸다.

베트남에서는 시장점유율이 1%대를 기록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외자보험사 중 점유율이 가장 높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빠른 경제성장으로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시장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자보 원수보험료 규모는 6조8500억 동(한화 3472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연평균 12.1% 성장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코리안리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로이즈 시장진출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진출해 있는 해외 사업의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교보생명 '몸 튼튼, 마음 든든' 캠페인

교보생명은 오는 6월까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캠페인 '몸 튼튼, 마음 든든'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개인건강 관리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체중감량, 허리둘레감소, 근육량 증가 3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수치를 정하면 된다. 20주 후 해당 목표를 달성하면 신청 시 서약한 금액이 기부된다. 회사도 해당금액을 매칭 기부 한다. 이 기부금은 건강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이 회사는 또 임직원들이 건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검진과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병옥 교보생명 교보다솜이지원센터장은 "건강에 대해 관심을 기부와 연계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기부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신한은행, 대규모 정기인사 단행

"조직 활력·동기 부여 제고"

신한은행은 22일 역대 최대 규모인 600여명의 지점장과 부지점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조직활력 제고와 영업력 강화를 위해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단행됐다.

특히 여성 경영진 후보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큰 폭의 지점장급 승진 인사가 진행됐다. 또 기업마케팅과 SOHO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여성 직원을 배치해 동기부여와 성장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신한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장기근무자 순환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고예방과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시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직활력 제고와 성과와 역량 우수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승진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업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자기계발 노력을 기울이는 직원들을 선발해 본부부서와 해외점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며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한화생명, 사내 홍보모델 9명 선발 한화생명은 22일 올해 사내 홍보모델 9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사내 모델들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홍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여직원 6명, 남직원 3명이다. 1993년 입사자부터 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까지 다양한 연령의 직원을 선발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의 홍보활동이 고객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BC카드, 은행·기관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BC카드는 22일 전국 11개 은행과 기관에서 'BC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이행복카드'는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는 IBK기업은행과 스탠타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등 전국 11개 금융기관 7000여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는 학비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시설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한 장의 카드로 동일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생활밀착형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BC카드는 ▲육아·학원·쇼핑업종 5% 할인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최대 20% 할인 ▲6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 5% 할인 ▲그린카드 혜택(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및 전국 600여개 문화체육관광시설 무료 입장) ▲40여 개 롯데 제휴사에서 롯데멤버스 포인트 적립과 롯데마트 다둥이 클럽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백아란기자

대림산업 지난해 2703억원 영업손실

대림산업이 2013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해외에 발목이 잡혔다.

대림산업은 22일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재무제표(IFRS)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2조5563억원 ▲영업손실 2227억원 ▲순손실 358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2014년 한해 ▲매출액 9조2961억원 ▲영업손실 2703억원 ▲순손실 4410억원을 기록했다. 396억원의 저조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2013년보다도 실망스러운 실적이다.

적자전환의 원인으로는 4분기 사우디와 쿠웨이트 현장에서 발생한 약 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꼽힌다. 현지의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하도업체 생산성 저하에 따른 공기지연과 공기준수를 위한 돌관비용 등의 여파로 원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

합성고무 생산플랜트, 라빅II 석유화학플랜트, 사다라 석유화학플랜트, 사다라 석유화학플랜트 등 사우디 현장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사우디 정부의 자국민 의무고용을 강화하는 사우디 현지화 정책이 사우디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의 숙련된 인력이 한정된 가운데 의무고용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불어 비숙련 노동자가 대거 유입됨에 따라 생산성은 기존보다 40%이상 떨어지고, 하자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우디 현장들은 올 상반기 중 공기가 막바지로 이어져 추가적인 비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마저도 올해 대부분 준공되는 만큼,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6조4000억원의 국내 수주를 달성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
처럼
100%
천연암반수
처음
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증권사들, 해외직구 열풍에 외국기업 리서치

박스권 국내 증시에 해외직구족 매년 증가
NH투자·하나대투 등 해외기업 본격 다뤄

안방에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인구가 늘면서 증권사들은 글로벌 외국기업들의 리서치 활동에 적극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국내 대장주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거나 운용 상품에 편입된 해외 기업들이 주된 분석 대상이다. 후강퉁 시행으로 투자문이 활짝 열린 중국 기업들도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반도체·자동차·철강 업종 등을 중심으로 전체 업종별 글로벌 기업들 중에 국내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해외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리서치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일에는 중국의 4차 베이비붐과 고령화 등의 수혜 종목으로 떠오를 중국 기업 8곳을 소개한 데 이어, 22일엔 미국 LED 칩·조명기기 업체인 크리(Cree)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해 6월부터 글로벌 자산 리서치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유럽·일본 등지의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와 실적을 분석하는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미국의 로봇 판매업체인 아이로봇을 시작으로 존슨앤존슨, 알코아, 인텔, 헤이와, 알리바바, 인테사 산파올로, 다임러 등 일본과 유럽 등지 대표 기업들을 골고루 다뤘다.

해외 기업의 리서치는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국내 시장의 업종별 대표 종목들의 주가를 예측할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미 기업 크리의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김혜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3년간 크리와 서울반도체의 주가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LED 개별 종목보다 LED 조명산업적인 관점에서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스닥 시가총액 13위의 서울반도체는 해외 동일 업종 기업(피어그룹)인 크리의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나흘째 올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체 시장 측면에서 볼 때 해외 기업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리서치 활동은 국내 법인 대상의 국내 시황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차츰 글로벌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고배당주나 해외 선진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객에게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속하는 해외 기업들을 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해외 주식 직구족은 후강퉁 시행으로 중국 투자길이 열리면서 더 늘어났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탈(SEIBRO)에 따르면 지난 한해 예탁원을 통한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376억9500만 달러로 1년새 68.2% 급증했다.

이 금액은 지난 2010년 124억2000만 달러에서 2011년 118억1000만 달러로 주춤했다가 2012년 183억7900만 달러, 2013년 224억600만 달러 등 증가하는 추세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ECB 양적완화, 국내 증시 영향은?

규모 당초 예상의 두배 이상 가능성

22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유동성 확대정책이 제시될 경우, 코스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오태동 LIG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시장에선 ECB의 양적완화 시행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규모 결정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양적완화 발표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인식돼 시장에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가 선언되면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국내 증시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도 "코스피가 박스권 하단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추가적인 악재만 없다면 ECB회의를 기점으로 반등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ECB의 양적완화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ECB 6인 집행이사회는 월 500억 유로(약 63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향후 1~2년간 실시하는 방안을 이날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채 매입이 1년간 진행될 경우 매입 규모가 총 6000억 유로, 2년간 계속될 경우 1조2000억 유로가 된다. 지금까지 시장이 예상한 국채 매입 규모가 5500억 유로 안팎임을 감안하면 매입 기간이 1년일 경우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고 2년일 경우 시장 예상을 두 배 이상 웃돌게 된다.

허진욱 삼성증권 거시경제팀장은 "후자의 경우 국채 매입 규모는 국채 발행 잔액의 17%에 이르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차·3차 양적완화에서 매입한 국채 규모를 합한 것과 같은 막대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ji@

현대차 주가, 실적 발표 후 하락 마감

관망세를 보이던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50% 넘는 배당 확대 발표에도 불구, 실적 악화로 인한 실망을 만회하진 못했다.

22일 현대차는 전날보다 2.04% 하락한 16만8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기아차는 0.20% 내려간 5만200원을 기록했다.

이날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보합권에 머물렀던 현대차는 실망스런 '성적표' 발표 후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전환했다.

현대차는 이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1조8756억75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보라기자



금호고속 직원들이 22일(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앞에서 경영권침탈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IBK 투자증권 규탄 집회 벌여

금호고속 직원들, 주주 사모펀드와 충돌

금호고속의 직원 240여명은 22일(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앞으로 몰려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경영권 침탈 행위와 인사 전횡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새벽 금호고속 직원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금호고속을 매수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측이 선임한 대표이사의 출근을 막아서는 등 충돌을 빚었다.

용역 직원들이 철수하면서 12시간 만에 대치상황이 끝났지만, 금호고속의 직원 24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사모펀드 측에서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부당하게 해임하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 측에서 기존 체결과 달리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금호고속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지 않고 공개매각을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2년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IBK 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 측에 금호고속을 매각했다.

당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재매각시 금호그룹에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 금호고속 매각을 공개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임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사모펀드 측은 "금호그룹에 부여된 우선매수권은 정당한 입찰을 통해 인수후보자를 선정하고 실사를 거쳐 정당한 가격이 산정되면 해당 가격에 되사갈 수 있는 권리인데, 금호 측이 매각절차 진행을 방해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모펀드측은 지난해 11월 금호그룹이 임명한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매각절차 방해를 이유로 해임한 뒤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금호고속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전 대표이사는 해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최근 기각됐다.

/이보라기자 purple@

현대차, 환율 직격탄 작년 영업익 7조5천500억



영업이익률 8.5%대로 하락, 매출액은 역대 최대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환율의 영향을 받아 7조원대 중반으로 떨어져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원화 강세와 신흥국 통화 약세로 인해 영업이익이 크게 뒷걸음쳤다.

현대차는 2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2014년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지난해 연간 496만1천877대를 판매해 89조2천56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매출액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2% 하락한 7조5천500억원을 기록해 2010년(5조9천185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영업이익률도 전년의 9.5%에서 8.5%로 1.0% 포인트 떨어졌다.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4.9% 감소한 9조9천513억원과 7조6천495억원을 나타냈다.

현대차 측은 "지난해 제네시스와 쏘나타 등 신차 효과에 힘입어 판매와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원화 강세 등 비호적인 환율 여건으로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원·달러 평균 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하락했으며 루블화 폭락 등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매출 23조5천742억원, 영업이익 1조8천75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매출 규모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현대차는 올해도 수입차 공세와 글로벌 경쟁업체 간 판매 경쟁 등으로 판매 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영 방침을 '투자확대를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로 세우고 연간 505만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쉐보레, 부분 변경

'어메이징 뉴 2015 크루즈' 출시!

새로운 전후면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

쉐보레(Chevrolet)가 글로벌 베스트셀링카 크루즈(Cruze)의 외관 스타일을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어메이징 뉴 2015크루즈'의 2월 본격 판매에 앞서 22일부터 사전계약에 돌입한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열린 신차 발표회에서 "올해 한국 시장에서 신모델 10종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그 출발점인 크루즈는 GM이 한국시장에서 다져온 입지를 더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호샤 사장은 "한국 소비자들은 올 한해 글로벌 대중 브랜드인 쉐보레와 럭셔리 브랜드인 캐딜락 등 GM의 두 브랜드 모두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신형 크루즈는 2011년 첫선을 보인 1세대 크루즈의 부분 변경 모델로 외관을 역동적으로 다듬고 실내에 세련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외관은 차세대 쉐보레 제품 디자인에 공통으로 적용될 '와이드 앤 로우' 콘셉트를 바탕으로 균형미과 안정미를 추구했다.

앞면에는 주간주행등 기능의 LED 램프와 부메랑 형태의 크롬 베젤(보석을 깎은 형상)이 적용된 프로젝션 안개등을 장착해 감각적인 멋을 더했다. 뒷면에는 스포츠카 카마로에서 영감을 얻은 후미등을 달아 견고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뒷범퍼 상단부에는 크롬 장식을 부착해 고급스러움을 가미했다. 새롭게 디자인한 17인치 알로이 휠을 채택해 역동적 디자인을 완성했다.

한국GM 디자인센터 남궁재학 전무는 "신형 크루즈는 전면부에서 차지하는 그릴 비중을 한층 높이는 등 하부를 좀 더 입체감 있게 디자인해 고급감과 정제미를 더했다"며 "크루즈를 통해 앞으로 선보일 쉐보레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5 크루즈 세단의 가격은 1.8 가솔린 LS 1750만원 ~ LTZ 2059만원, 1.4 가솔린 터보 LT 2030만원, LTZ 2155 만원, 2.0디젤 LT 2225만원, LTZ 2320만원이다. 해치백 모델인 크루즈5의 가격은 1.8 가솔린LTZ 2070만원, 1.4 가솔린 터보 LTZ 2165만원(자동변속기 기준)이다.

/김종훈기자



독특한 매력 갖춘 쌍용의 신작, 티볼리

시승기

"쉐보레 트랙스, 르노삼성 QM3와의 경쟁도 자신"

쌍용 티볼리

21일 티볼리 시승회에서 만난 쌍용차 차량개발센터 이수원 전무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가 이렇게 확신하는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티볼리를 타고 서울 여의도 마리나에서 파주 헤이리마을을 오가며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다.

티볼리는 쌍용의 SUV 라인업 중 '코란도 C'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모노코크 섀시(일체형 차체) 타입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모노코크 타입은 프레임 타입(강철 프레임 위에 차체를 얹는 방식)에 비해 가볍지만 차체 강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도심형 SUV가 늘어나는 요즘에는 모노코크 타입을 채택하는 차가 많다. 국내 SUV 중에서도 쌍용차의 SUV를 제외하면 기아 모하비만 프레임 타입을 채택하고 있을 정도다. 티볼리는 모노코크 차체 채택으로 공차중량을 1270~1300kg으로 경량화했다. 렉스턴W(1905~1990kg)에 비해 훨씬 가볍고, 비슷한 덩치의 코란도 C(1645~1730kg)에 비해서도 가벼운 차체다.



가벼운 차체의 비결은 디젤 엔진에 비해 가벼운 가솔린 엔진을 얹은 데다, 군살을 덜어낸 콤팩트한 크기와 초강력 강판 비율을 높인 덕분이다. 티볼리의 길이×너비×높이는 4195×1795×1590㎜로, 미니 컨트리맨(4097×1789×1544㎜)과 매우 유사하다. 쉐보레 트랙스와 비교하면 길이는 50㎜ 짧고 너비는 20㎜넓고 높이는 80㎜가 낮다. 쌍용차가 또 다른 경쟁차종으로 지목한 르노삼성 QM3와 비교하면, 길이는 70㎜ 길고 너비는 15㎜ 넓고 높이는 25㎜ 높다. 이를 종합해 보면 소형 SUV라기보다는 크로스오버비클(CUV)에 가깝다.

티볼리는 오는 7월 추가되는 디젤 모델에 앞서 가솔린 모델을 먼저 선보였다. 미니 컨트리맨과 QM3는 디젤 모델만 있고 트랙스는 가솔린 모델만 있는 반면, 티볼리는 가솔린과 디젤을 모두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새로 개발한 e-XGi160 엔진은 1.6ℓ 배기량에 최고출력 126마력, 최대토크 16.0kg·m를 낸다.

/김종훈기자

신사동 가로수길에 '더 하우스 오브 스웨덴'

볼보자동차코리아가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브랜드 체험공간 '더 하우스 오브 스웨덴'(사진)을 열어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을 알리고 문화 소통 강화에 나섰다.



북유럽 별장을 옮겨놓은 듯한 외관의 이 공간은 1927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볼보 자동차의 브랜드 이야기와 유산을 전달하기 위한 팝업 스토어(임시 매장)로 4월21일까지 총 3개월간 운영된다.

볼보의 브랜드 카페&라운지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곳에선 스포츠 세단 S60, 해치백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섞어놓은 듯한 크로스컨트리 등 볼보의 대표 차량과 함께 스웨덴의 커피문화, 요리, 패션, 음악, 인테리어 등 북유럽 문화 전반을 경험할 수 있다.

볼보 자동차 이외에도 중형 카메라인 핫셀블라드, 고급 아웃도어 하그로프스, 보드카 앱솔루트, 스웨덴식 식당 헴라갓 등 스웨덴을 대표하는 브랜드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매장 내에서는 스웨덴 커피 전문점 피카가 상시 운영된다.

/김종훈기자

SK C&C 글로벌 반도체시장 공략 본격화

'KLEVV(클레브)' 브랜드 국내에 첫 선

SK그룹의 IT서비스업체 SK C&C가 프리미엄 반도체 모듈 브랜드 '클레브'(KLEVV)를 출시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SK C&C의 반도체 모듈 자회사 에센코어는 2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클레브 브랜드 등 5개 신제품을 선보였다.

노성수 에센코어 상무는 "기술·품질·디자인을 갖춘 '클레브' 브랜드 론칭을 시작으로 세계반도체 모듈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현재 중화권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모듈을 대부분 공급하고 있지만 기존 시장을 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콩에 본사를 둔 에센코어는 SK C&C가 반도체 모듈 사업을 위해 2013년 8월 인수한 ISD 테크놀로지사의 새 회사명으로, SK C&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모듈 업체는 메모리반도체를 공급받아 노트북·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 탑재되는 D램 및 마이크로 SD카드·USB 등을 제조·유통한다.

에센코어가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게임용 모듈인 DDR4·DDR3, 64GB급 지문인식 USB 등이다. 게임용 PC 제조업체와 게임 마니아층을 겨냥한 게임용 모듈은 한층 빠른 동작 속도와 뛰어난 발열 해소 기능을 갖췄다.

또 업계 최초로 선보인 지문인식 USB는 4중 데이터 보안 알고리즘을 반영한 고성능 제품으로 올해 3월 본격 양산된다.



에센코어 노성수 상무.

에센코어는 3년후 세계 5대 반도체 모듈 기업으로 올라서고, 10년 안에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1등 기업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회사는 먼저 북미·유럽 등 선진국 시장을 개척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뒤 반도체 모듈 분야 최대 격전장인 중화권으로 세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현재 33조원 규모의 반도체 모듈 시장은 킹스톤·트렌샌드 등 중화권 기업이 장악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이 전무한 상태에서 에센코어가 유일하게 세계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에센코어는 23~2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게임쇼 '팍스사우스'에서 클레브 브랜드 제품군을 소비자에게 처음 선보일 계획이다. 이어 도쿄게임쇼와 지스타 등도 참여해 B2B와 B2C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스마트폰 판매량 기대치 못미처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와 성장세 둔화로 지난해 LG전자 제품 판매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세계 시장에서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은 3분기보다 80만대 줄어든 약 16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한 해 동안 총 596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지난해 총 판매량이 6000만대 고지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은 가운데 LG전자가 판매수치를 기록한 것은 향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전년 대비 21% 상승이라는 기록도 이끌어 냈다.

업계에서는 G3의 파생폰인 G3 비트, G3스타일러스 등이 G3의 바통을 이어받아 톡톡한 역할을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2009년부터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했지만 2년간의 '암흑기'를 거쳐 2011년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양성운기자


아시아나항공, 필리핀 원주민마을 식수시설 복원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22일 굿피플,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필리핀 딸락주 카파스시 아이따족 필리안 마을의 식수시설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SK해운-삼성중공업, 선박건조 계약

SK해운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전용선 운영선사 선정 입찰에서 확보한 LNG선 2척(KC-1선형)에 대해 삼성중공업과 22일 선박건조계약 서명식을 열었다.

사측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해 2017년부터 20년 동안 미국 루이지애나주 사빈패스 LNG기지에서 한국으로 적당 매년 약 47만t의 셰일가스 운송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SK해운은 한국형 LNG 화물창인 KC-1 선형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그동안 화물창 원천기술을 독점하고 있던 외국 기업에 지불하던 로열티를 절감하는 등 국부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SK해운은 6척의 LNG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조 중인 선박과 이번에 건조계약을 체결한 선박이 인도되는 2017년부터 10척의 LNG선을 운영하게 된다.

/이정필기자 roman@



백석현 SK해운 대표이사(왼쪽)가 22일 박대영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 LNG선 2척 건조 계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SKT 방통위 단독조사에 KT와 갈등 고조

리베이트 살포 주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18일 이동통신업계의 고액 리베이트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과 관련,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19~20일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유통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여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중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언론에 SK텔레콤이 시장과열을 촉발한다며 방통위 제재를 촉구했던 KT가 방통위 조사 방침이 발표된 21일 오히려 자사 유통망에 대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살포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SK텔레콤 측은 "KT가 21일 오후 자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전체 유통망에 최대 55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살포했다"며 "이들은 공식 판매망이 아닌 SNS, 폐쇄몰 등을 위주로 음성적인 페이백을 활용해 현재까지도 가입자 유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KT의 움직임은 앞에서는 경쟁사를 성토하면서 뒤로는 규제기관의 눈을 피해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자사 잇속을 챙기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갤럭시노트4에 공시지원금 25만원 외에 추가 페이백 30만~45만원, 아이폰6의 경우 공시 지원금 25만원 외에 추가 페이백 16만~45만원을 지급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러한 KT의 행태는 규제기관의 눈을 흐려 조사의 정확성을 왜곡하려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방통위 시장 조사 시행 시점에 벌인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 역시 규제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KT측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안착을 위해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SK텔레콤이 반성은 커녕, KT도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SK텔레콤이 제시한 채증에 등장하는 대리점이 KT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 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 정상화에 노력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SK텔레콤이 다시 한 번 시장을 혼탁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데 심히 안타까움을 표명한다"며 "거증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 조치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LG전자, TV·스마트폰 등 실적 부진 우려

주요 사업 기대 이하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기대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3800억원에 달하는 영업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낙관론과 3000억원을 밑돌 것이라는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LG의 전통적인 주력 사업인 TV와 지난해 깜짝 실적을 내놓은 스마트폰이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의 4분기 실적이 TV 부문의 수익성 저하로 당초 기대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TV시장은 최근 1년 동안 PDP TV 교체주기와 업체 간 가격경쟁 자제 기조가 맞물려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분야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예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아 가격경쟁이 심화됐으며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LG전자의 TV 부문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LG전자는 퀀텀닷 TV 양산에서도 경쟁사에 뒤처지면서 올해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LG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OLED TV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

OLED TV는 UHD LCD TV보다 색재현율과 커브드 디자인에서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LCD TV의 기술 수준이 OLED만큼 올라오면서 시장이 쉽게 커지지 않고 있다. 반면 LCD 패널에 퀀텀닷 소재를 입힌 필름을 더한 퀀텀닷 TV는 OLED TV만큼은 아니지만 색재현율이 매우 뛰어나 차세대 TV로 각광받고 있다. LG전자의 퀀텀닷 TV는 올해 2분기부터 양산이 가능할 전망이라 이미 경쟁의 후발주자가 됐다.

지난해 3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분기에는 애플의 '아이폰6',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 등 경쟁사의 주력 제품이 출시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LG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국내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LG전자는 국내 시장 판매 점유율에서 33%를 차지한 애플의 아이폰에 2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LG전자가 국내에 출시한 300만원대 OLED TV. /LG전자 제공

이같은 실적 우려에 LG전자의 주가도 요동치고 있다. LG전자의 주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동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연이은 주가 하락에 그룹 계열사 내 시가총액 순위도 LG생활건강에 밀려나 5위까지 떨어지는 등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0조1134억원이 되면서 LG생활건강을 다시 5위로 밀어내긴 했지만 그룹 전체 매출의 50% 가량을 LG전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업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올해도 녹록지만은 않은 글로벌 환경이 예고되고 있어 사업구조 재편 등 시장 환경에 대응할 전략이 부재하다는 의견도 시장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유죄 판결 당연"

현대그룹은 22일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번 결정은 민 전 위원장이 현대증권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대증권에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민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의 해외사모펀드 매각설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고용안전에 불안을 일으키고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업무방해를 초래한 점이 명백하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쓰레기'라는 표현 등으로 조롱과 멸시가 담긴 표현을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그룹 측은 "민 전 위원장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해사 행위 지속으로 현대증권의 대외 신뢰도 추락과 임직원들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현대그룹의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뜨린 게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민 전 위원장은 더 이상의 악의적 의혹 제기를 중단하기 바라며, 이를 계기로 현대증권 노사가 회사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는 건전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

8588억 규모 가스공사 LNG선 4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한국가스공사가 10년 만에 발주하고 지난해 수주 확정된 액화천연가스(LNG)선 4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운영선사인 대한해운과 현대LNG해운으로부터 각각 2척씩 총 4척의 17만4000㎥급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4척의 계약 총액은 약 8억 달러(8588억원) 규모다.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우오현 대한해운 회장, 이갑재 현대LNG해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선박은 대한민국 가스공사 국책 사업으로는 처음 건조되는 ME-GI LNG 운반선이다.

회사가 자체 개발한 LNG연료공급시스템과 재액화 장치(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가 탑재된다.

해당 장치가 적용된 ME-GI LNG운반선은 연료효율이 높고 운항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22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G 플렉스2' 공개 행사에서 LG전자 MC한국영업FD 조성하 부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최범석·오연서·고태용(왼쪽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과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LG전자 G플렉스2 발열 문제 '이상 無'

3개월간 테스트 결과

LG전자가 발열 논란이 발생한 퀄컴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 810'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스냅드래곤 810을 테스트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갤럭시S6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도 이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주목된다.

LG전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커브드 스마트폰 G 플렉스2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스냅드래곤 810을 벤치마크 테스트 등 여러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발열이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이날 공개한 2015년 첫 전략 스마트폰 G 플렉스2에는 세계 최초로 퀄컴의 최신 AP 스냅드래곤 810이 탑재됐다. 스냅드래곤 810은 지난해 말부터 과도한 발열 현상이 일어난다는 논란이 일었던 칩이다.

우람찬 LG전자 MC사업본부 MC상품기획FD 상무는 "3개월 가량 테스트해본 결과 기존 핸드폰보다 발열이 줄었다"면서 "발열 이슈가 왜 불거졌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라며 의아해했다.

최용수 LG전자 MC사업본부 MC연구소 상무는 "시스템의 발열은 단지 AP의 성능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며 "G 플렉스2는 최적의 냉각설계를 시행해 발열 문제가 없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G플렉스2는 지난 2013년 11월 출시한 G 플렉스의 후속 모델로 독창적인 곡면 디자인과 고성능 하드웨어로 사용 편의성과 심미성을 한층 강화했다. 퀄컴의 64비트 옥타코어 칩셋 '스냅드래곤 810'을 탑재했으며 '3밴드 LTE-A 서비스'를 지원한다. 3밴드 LTE-A는 3개 대역 주파수묶음기술을 적용해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300Mbps로 기존 LTE 보다 4배 빠르다.

/정혜인기자

식품업계는 지금 '빼기 마케팅'

무첨가 두유·저당 야쿠르트 등 첨가물 줄인 제품 잇따라



식품업계에 나트륨·당 등 첨가물을 줄이는 '빼기' 열풍이 불고 있다. 웰빙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첨가물을 빼고 원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제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한국 야쿠르트는 '당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야쿠르트 400라이트 ▲세븐 허니 ▲내추럴디저트 세븐 ▲윌 저지방 ▲하루야채 키즈 등 저당 제품 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야쿠르트 400라이트의 경우 액상과당 대신 올리고당을 넣어 당 함량과 칼로리를 기존 야쿠르트보다 각각 50%, 30% 낮췄다.

대상 청정원 '리얼 제로'는 무지방 드레싱으로 첨가물 대신 오렌지와 망고, 레드자몽,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을 사용해 건강한 맛을 구현했다.

리얼 제로라는 제품명처럼 지방뿐 아니라 합성보존료·합성착향료 등 합성첨가물도 넣지 않았다. 무지방 제품인 만큼 칼로리도 확 낮췄다. 1회 제공량(50g) 기준으로 레드자몽은 35㎉, 오렌지망고와 라임파인애플은 40㎉에 불과하다.

농심도 당 함량과 칼로리를 줄인 '카프리썬'을 선보였다. 당 함량을 평균 36%가량 줄여 100㎖에 당 성분을 15g 이하로 낮췄다. 덕분에 칼로리도 1개 제품당 92㎉에서 60㎉로 35% 줄었다. 대신 농심은 과일주스의 상큼한 맛을 살리기 위해 중남미가 원산지인 스테비아 식물 줄기에서 추출한 당을 넣었다.

첨가물을 아예 넣지 않은 무첨가 제품도 확산되고 있다.

정식품은 건강을 고려한 '베지밀 무첨가 두유'를 내놨다. 이 제품은 소금·설탕·합성착향료 등을 일절 넣지 않은 두유로 일반 두유보다 1.5배 많은 콩단백질이 들어있어 건강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식품 관계자는 "맛 이외에도 건강과 웰빙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식품업계의 무첨가 혹은 첨가물 줄이기 바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한국 양파, 베트남서 통했다"

롯데마트, 연간 500톤 국산 농산물 판매

롯데마트는 베트남에서 판매한 국산 양파가 5일 만에 전체 준비 물량이 소진되며 판매호조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10개 점포에 1차로 10톤 가량을 수출했으며 지난 15일부터 1kg에 5800동(한화 약 290원·1동 0.05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완판까지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행사 시작 5일만에 전점에서 물량이 동이 났다.

베트남산 양파에 비해 크고 즙이 많으며 단맛과 향이 잘 조화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 소문을 타면서 완판까지 이른 것으로 마트 측은 분석했다.

또 베트남 현지 양파 소매가격(한화 약 450원·1kg) 보다 35% 가량 저렴한 것도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롯데마트는 베트남 전 점에 한국 농산물 상시 판매 코너를 만들어 연간 500톤 가량의 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우선 양파를 중심으로 다음 달 말에는 팽이 버섯 등을 추가 운영하고 제철 채소류와 사과·배 등 계절 과일류까지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원식 롯데마트 베트남 법인장은 "이번 국산 양파의 베트남 진출은 국내에서 가격이 폭락한 품질 좋은 국산 농산물의 해외 판로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국산 농산물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을 줘 향후 다양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남성 정장세트가 9만8900원! 홈플러스가 '플로렌스&프레드' 남성 정장세트를 시중 브랜드의 반값 수준인 9만8900원(상의 6만9000원, 하의 2만990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BGF리테일, 동반성장 특강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BGF리테일 사옥에서 임직원들과 60여 개 중소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특강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건준 BGF리테일 부사장이 인사말을 통해 동반성장 특강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BGF리테일 제공

이날 동반성장위원회 김종국 사무총장은 공유가치창출(CSV)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경영을 당부했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공유했으며 BGF리테일은 자사의 동반성장 정책 현황을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상생경영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강을 시작으로 중소협력사와의 성과공유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수정기자

실속있고 먹기쉽게… 설 선물 트렌드 'DEAR'

신세계백화점 2월 2일부터 본판매

올해 설 선물은 개성있고 조리하기 간편한 제품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설날 선물 트렌드를 'DEAR'로 선정하고 이에 걸맞는 상품을 내달 2일 본판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각 부분에서 차별화된(Different) 선물을 많이 준비한다.

거제에서 잡은 대구를 건조한 '거제 외포 건대구 세트'(20만원)와 최고급 한우를 4~6주 건조 숙성시킨 '한우 스테이크'(50만원), 양의 해를 맞아 '후레쉬양갈비 세트'(20만원) 등을 판매한다.

먹기도 조리하기도 편한 선물 (Easy-to-cook)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기존 굴비세트는 '열 마리씩' 두릅으로 엮여 풀어서 손질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 굴비를 2마리씩 포장한 '법성포 구가네 참편한 굴비 세트'(12만원·사진)를 내놓는다.

갈치세트의 경우 갈치의 양쪽 끝에 있는 배뼈와 등뼈를 발라내 아이들과 어르신이 먹기 편하게 구성한 효도갈치 세트(22만원)를 준비했다.

5마리만 포장한 수협 알찬 굴비(12만 5000원), 3마리로 구성된 '제주 성산포 은갈치 세트'(11만원) 등 늘어나는 1~2인가구에 꼭 맞는 소포장 선물(appropriate)도 마련했다.

경기침체 속에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대(Reasonable)의 선물도 다채롭게 구성했다.

한우 실속세트인 '목장한우 2호(17만원)'와 '행복한우(12만원)'의 물량을 전년 설 대비 10~15% 이상 늘렸고, 지난 추석까지도 없었던 20만원 초반의 한우 후레쉬 4호(23만원)도 새롭게 선보인다.

/박지원기자

흰우유 중국 수출 재개… 실사단 방한

지난해 5월부터 중단된 흰우유(살균유) 중국 수출 재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중국측 실사단이 다음 주 방한, 흰우유 중국 수출재개가 기대되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실사단이 유제품 수출업체 등록을 위한 마무리 절차의 하나로 26일 방한, 다음 달 2일까지 국내 흰우유 생산업체들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소속 실사단 5명은 흰우유 수출이 보류된 기업 7곳 중 5곳을 둘러보고, 중국에 다른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 2곳에 대한 사후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130℃ 이상 초고온살균법을 이용해 만든 우유의 유통기한이 자국 우유보다 긴 것 등을 문제 삼아 국내우유 업체들의 수출 등록을 보류했다. /염지은기자 senajy7@

쌍춘년 가구 특수… 혼수·학생용 수요 증가



딩키 시리즈. /까사미아 제공

롯데백, 웨딩 페어 앞당겨… 3대 품목 50%↓

연초부터 가구 업계가 특수를 맞았다.

올해는 입춘이 두 번 들어있는 쌍춘년이서 혼수용 가구와 겨울 방학과 신학기 시즌을 맞아 학생용 가구 수요가 동시에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가구 업계를 비롯해 백화점·온라인 등 유통업계까지 가구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에이스침대는 비씨카드와 함께 '해피 뉴 에이스 이어 이벤트'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비씨카드로 30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LG전자 침구 청소기를, 150만원 이상 결제하면 행남자기의 고급 홈식기 세트를 제공한다.

또 비씨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까사미아는 오는 25일까지 키즈&주니어 전품목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연다. 키즈 가구 베스트셀러 제품인 '브라우니' 침대세트와 로맨틱한 느낌의 아기자기한 '릴리' 침대세트 모두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신제품 '딩키' 시리즈는 10% 할인된 90만원에 선보인다.

다음 달에도 키즈 관련 프로모션을 이어갈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보다 한 달 앞당겨 올해 첫 웨딩페어를 진행하면서 혼수 가구 3대 아이템을 품목별로 50% 할인 판매한다. 템퍼, 나뚜찌, 레이지보이 등 수입 가구도 품목별로 10~25% 할인한다. 웨딩 페어 기간은 23일부터 2월 1일까지다.

또 옥션은 다음 달말까지 신학기 기획전을 열고 친환경 소재 가구, 아동 가구, 기능성 침구 등 공부방에 필요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이 온라인 몰에서는 1월 들어 아동 가구 판매가 늘었다. 책상의자세트가 지난해보다 145% 급증했으며 아동·주니어 가구 중 책상·책장 판매는 50% 뛰었다. /김수정기자

이랜드, 베어스타운 타워콘도 리뉴얼 오픈



이랜드그룹은 스키리조트 베어스타운의 타워콘도(사진)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타워콘도는 슬로프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타입의 숙박시설이다. 지난 3개월간의 리뉴얼 공사를 끝내고 현재 191개 객실을 운영 중이다.

로비는 사슴뿔을 형상화한 골드톤의 오브제로 웅장해졌으며, 객실도 노르딕 패턴의 카페트와 쿠션 등 북유럽 감성의 소품들로 꾸몄다.

특히 객실에서 소학산 아래로 펼쳐진 하얀 스키장 슬로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객실 내에서도 탁트인 정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 규모별로 11개의 연회장과 세미나룸이 마련돼 있다. /김수정기자

'랜드로바 네이처 라이트 웻지' 출시



금강제화가 초경량 여성슈즈 '랜드로바 네이처 라이트 웻지'를 출시했다.

랜드로바 네이쳐 라인의 신제품으로 물 한잔보다 가벼운 140g(230㎜ 기준)의 무게, 부드러운 양가죽 외피, 탄성이 좋은 파일론 밑창 등이 장시간 착용할 때도 편안함을 주는 것이 장점이다.

앞 15㎜, 뒤 45㎜의 완만한 웻지와 디딤점 부위에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SBR(Styrene Butadiene Rubber) 소재를 사용했다.

핑크, 그린, 블랙 등 3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가격은 17만8000원이다. /김수정기자

몸집 커지는 보디케어 시장

보습 중시 생활습관으로 불황에도 성장세



보디케어 시장이 불황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보디제품 시장 규모는 12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성장했다.

보습을 위해 몸에 로션·오일 등을 바르는 생활습관이 확산되고 젊은층 사이에서 선물로 보디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디케어 시장의 몸집이 커지면서 관련 업체들도 차별화된 기능의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판매 채널도 백화점·드러그스토어·대형마트·방문판매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일리는 보습은 물론 탄력과 윤기에 주목, 론칭 이후 '전지현 보디로션'이라는 애칭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인삼의 피부 활력효과와 동백의 영양·윤기 효과, 콩의 보습 효과,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고루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일리 측의 설명이다.

설화수는 노화로 축 처진 피부를 쫀쫀하게 가꿔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보디크림 '연섬바디크림'을 내놨다. 이 제품에는 보습 성분인 꿀이 함유돼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의 스킨케어 브랜드 이씰린은 '데일리 트루 모이스처 오일'을 선보였다. 호호바·로즈힙 성분 등을 함유해 끈적임없이 산뜻하게 스며들고, 불가리안 로즈와 머스크향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향취가 특징이다.

해외 뷰티브랜드들도 보디제품을 새롭게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론칭한 영국 보디케어 브랜드 '더티웍스'는 달콤한 향의 '수프림 크림 바디버터'로 국내 보디케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프랑스 보디케어 브랜드 빠니에 데 썽스는 드라이 오일 타입의 '마사지&보디 오일'로 뷰티족을 사로 잡았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화장실 청소, 따로 시간내지 마세요"

샤워할 때 욕조·변기 등 청소하면 효율적

화장실은 잦은 사용과 높은 습도로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따로 시간을 투자해 청소하기 보다는 샤워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치약, 린스 등 생활용품을 사용하거나 전용 세제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다.



변기의 찌든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하기가 힘들어지고 화장실 내 악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최소 한달에 1~2회는 닦아줘야 한다. 변기 청소는 샤워 전에 변기 전용 솔에 치약을 묻혀 구석구석 닦아 준 후 물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두고 샤워를 마친 뒤 물을 내려주면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된다.

욕실 벽면과 부스 등에 생긴 물때도 샤워 중에 닦으면 된다. 샤워 중 생긴 수증기가 물때를 불려주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또 린스를 솔에 묻혀 닦아 주면 제거는 물론 코팅효과까지 볼 수 있다.

화장실 전용방향제를 사용하면 악취를 줄일 수 있다. 애경에스티 '홈즈 에어후레쉬 크리스탈 워터 화장실·욕실용'은 천연허브 엑기스 성분과 미네랄 소취성분이 함유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화장실의 악취성분을 제거해준다. 또 슈퍼 웨이브 휘산지를 사용해 사용기간 내내 은은한 향이 일정하게 지속돼 상쾌한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강강술래, '한우사골곰탕' 파격 할인

신상품 500㎖ 곰탕 30% 할인에 덤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인기 상품인 한우사골곰탕 신상품 출시와 포장 리뉴얼 실시를 기념해 파격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신상품 곰탕(500㎖/7팩/14인분)을 30%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하며, 구매시 3팩(6인분)을 덤으로 증정한다.

이번 리뉴얼은 한국의 전통미를 살리는 이미지와 함께 곰탕이 우리나라 가정에서 즐기는 보양식 중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는 전통음식이란 점을 부각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2011년 대용량(800㎖)과 소용량(350㎖) 곰탕을 선보인 이후 누적 판매량이 130만개를 넘어설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다. 또 레토르트 파우치로 포장해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다.

같은 기간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통등심돈가스(720g·2박스)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2박스)로 구성된 세트는 40% 할인된 3만7200원, 한우양념불고기(500g·2팩)와 한돈양념구이(500g)로 구성된 나라사랑세트는 약 43% 할인된 4만3000원에 판매한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삼원온스파의 최고급 온수매트 퀸과 온천·스파를 즐기며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이용권, '스키너의 마지막 강의'와 '슈퍼잼 스토리' 등 길벗의 추천도서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산들건강, '변석홍옥고' 출시

설날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 마련

산들건강(www.isandle.co.kr)이 직접 재배한 국산 약재로 만든 '변석홍옥고'를 출시했다.

변석홍옥고는 변한의원에서 제조한 '경옥고'로 경옥고는 기혈을 보하고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약이다. ▲홍삼▲생지황 ▲백밀 ▲백복령 등의 약재가 주원료이며 만성 피로는 물론 기력 소모와 기억력 감퇴,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원나라 시조인 쿠빌라이 칸은 건강을 위해 경옥고를 즐겨먹기도 했다.



또 변석홍옥고는 고종황제의 어의를 지냈던 변석홍 옹이 고종황제에게 진상했던 것으로 지금도 전통적인 방법 그대로 만들어진다. 가장 중요한 약재도 충북 영동 등에서 직접 재배하며 약재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아울러 산들건강은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변석홍옥고를 20% 할인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벤트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면 폐와 기관지 건강에 좋은 '산들 도라지통배고(120g)'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산들통배고' 선물세트도 15~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선물세트를 구입한 고객에게도 산들 도라지통배고(120g)가 증정된다. 문의: 02)778-4568·070)4265-50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소상공인 위한 O2O 플랫폼 '그루'

고객에게 직접 광고 보낼 수 있어 편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그루'가 출시됐다.

이글루온(대표 박만섭)이 개발한 그루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로컬 광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다.



지역 소상공인이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고주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가게 주변(100·200·300m) 내 근접 고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직접 광고를 보낼 수 있다.

또 애플리케이션의 템플릿을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광고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다. 특히 일반적인 모바일 광고와 달리 광고이용자가 주변 광고주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토록 하면 3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글루온은 전국 서비스를 위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오픈 베타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042)487-4420

/황재용기자



롯데백화점 수원점 내에 위치한 '워터테이블'. /SPCN 제공

체질·취향따라 마실 수 있는 워터바 인기

체질과 취향에 따라 '좋은 물'을 골라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워터바(Water Bar)'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09년 9월 본점에 워터바를 만들었다가 1년만에 철수한 롯데백화점은 최근 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워터바를 귀환시켰다. 지난해 여름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새롭게 워터바가 들어섰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롯데백화점 수원점에도 워터바가 자리했다.

신세계백화점도 2009년부터 강남점에서 워터바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워터바는 다양한 생수를 진열하고 워터 어드바이저를 통해 고객에게 물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워터바가 값비싼 외국 생수를 늘어놓은 매장이었다면 최근 생겨나는 프리미엄 워터바인 '워터테이블(Water Table)'은 워터 코디네이터가 소비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물을 서비스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대표적인 SPCN의 워터테이블은 국내외 생수와 탄산수 등 100여 개의 상품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에게 맞는 물을 제조하거나 원하는 물로 음료수를 만들어 주는 '워터 블렌딩(Water Blending)'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는 다양한 생수나 특정 생수로 만든 음료를 판매하는 물카페도 등장했다.

/황재용기자

대학생 스피치 프로젝트 '망치3'

페이스북 통해 참가 신청 가능

글로벌 광고회사 TBWA코리아가 내달 11일 오후 2시 홍익대학교 홍문관 지하4층 가람홀에서 대학생 스피치 프로젝트 세번째 이야기 '망치3'를 실시한다.

광고회사 TBWA코리아의 재능기부 프로젝트인 망치는 13명의 대학생과 6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 각자 7분 씩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스피치 프로젝트로 벌써 3회째를 맞았다.

지난 1회에서는 '쌍년기'가 필요하다는 발칙한 주장부터 군대·수능·울렁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2회에서는 가혹한 현실에 맞서 빼앗긴 청춘에도 봄이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번 망치3는 망치의 탄생과 '사람은 누구나 폭탄'이라는 철학이 담긴 책자를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페이스북(www.facebook.com/tbwakorea) 안내문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초대장을 준다.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대표는 "망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젊은 재능을 찾자는 의도로 출발했으며 청중들은 창의적인 생각에서 영감을, 발표자들은 자기 내부에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2) 528-9626, webmaster@tbwakorea.com

/김수정기자 ksj0215@

엔제리너스커피, 설 선물세트 선보여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는 설을 맞아 22일부터 다음 달 22까지 '설 선물세트 3종'을 선보인다.

청양 머그컵 1개와 우려먹는 커피 드립백으로 이뤄진 청양세트 A, 청양 머그컵 2개와 5천원이 충전된 선물카드로 구성된 청양세트 B, 텀블러 1개와 커피 드립백, 선물카드로 구성된 청양세트 C 등이다. 가격은 각각 2만4000원, 3만5000원, 4만4000원이다.

설 선물세트 3종 구매 시 엔제리너스 아메리카노 시음권 2매를 제공한다.

신작 게임 아이템의 무한 확장

인기 웹툰·아이돌 소재 출시 활발

게임업계가 이색 아이템에서 신작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웹툰과 아이돌 그룹 등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사 인기 웹툰을 소재로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다. 네이버 웹툰 게임 1호는 판타지 만화 '신의 탑'이다. 이 모바일 게임은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다른 인기 웹툰 '노블레스'와 '갓오브하이스쿨'도 상반기, '소녀 더 와일즈'는 하반기에 출시된다.

네이버는 모바일 웹툰 서비스 내에 해당 웹툰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는 '웹툰 게임하기' 기능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웹툰 앱에서 좋아하는 웹툰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해당 웹툰을 원작으로 한 게임을 연달아 즐길 수 있다. 웹툰과 연계한 마케팅 활동은 덤이다.

웹툰 모바일 게임은 이용자 접점이 넓으면서 개발 목표가 명확해 높은 수익성이 예상된다. 네이버는 게임의 배급사로서 수수료를 얻고, 게임 창작자는 부가 저작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게임 제작사는 원작을 바탕으로 이용층이 확실한 게임을 만들 수 있어 개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김준구 네이버 웹툰&웹소설셀장은 "네이버 웹툰 서비스에서 웹툰 원작의 게임 다운로드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게임들이 팬에게 보다 잘 알려지고, 창작자의 수익도 높아지는 윈윈 사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만화를 원작으로 게임이 만들어진 사례는 네이버 웹툰이 최초는 아니다. 엔씨소프트는 신일숙 작가의 장편 만화 '리니지'를 소재로 1998년 MMORPG '리니지'를 만들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리니지는 왕자·공주·요정·마법사 등의 종족 중 하나를 자신의 캐릭터로 선택해 적과 싸워간다는 줄거리를 지닌다.





이후 대중적이면서 환상적 세계관을 갖춘 만화는 게임업계 인기 콘텐츠로 떠오른다.

한편 오디션 프로그램과 아이돌 열풍을 소재로 삼은 게임도 나왔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개발한 아이돌 매니지먼트 시뮬레이션 모바일 게임 '아이돌드림:걸즈'를 최근 출시했다. 이 게임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돌드림:걸즈'는 좋아하는 걸그룹 멤버들로 팀을 구성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지닌다.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아이돌과 계약을 맺고, 유닛도 결성할 수 있다. 결성된 그룹은 보컬과 안무 연습, 콘서트, 사인회 미션을 거치며 성장해간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인기 걸그룹 멤버가 실사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소녀시대, 미쓰에이, 시스타, 레인보우 등의 인기 걸그룹이 실제 캐릭터로 나온다. 현재까지 출시된 대부분의 아이돌 소재 게임들은 가상의 아이돌을 단순 육성하는 형태이거나 실제 아이돌이 아닌 아바타를 등장시키는 한계가 있었다.

'아이돌드림:걸즈'를 개발한 박준영 NHN엔터테인먼트 PD는 "새로운 걸그룹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지루할 틈 없는 도전과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이돌드림:걸즈' 인기에 탄력받아 남자 아이돌이 나오는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2015 롤드컵'은 유럽에서

8강부터 결승까지 분산 개최

한해 최고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승부사를 가리는 '2015시즌 LoL 월드 챔피언십'이 유럽에서 열린다. LoL 월드 챔피언십은 월드컵 토너먼트와 경기 방식이 같아 일명 '롤드컵'으로도 불린다.

라이엇 게임즈는 자사가 개발 및 배급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 대회를 올해 유럽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룹 스테이지, 8강, 준결승, 결승은 유럽 전역을 거쳐 열린다. 라이엇 게임즈는 구체적 일정을 조만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은 롤드컵과 유서 깊은 장소다. 우리나라에서 LoL이 서비스되기 전인 2011년 여름, LoL 역사상 최초의 월드 챔피언십이 8개팀의 참여 속에 스웨덴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롤드컵 출범의 조석이 됐다.

지난해 롤드컵 결승전은 우리나라에서 열려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롤드컵 결승전은 유료 관객 4만명 달성,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전세계 누적 시청자수 2억8800만명 등의 기록을 세웠다.

한편 올해 롤드컵에 우리나라는 LoL 챔피언스 섬머 우승팀, LCK 스프링 및 섬머 합산 챔피언십 포인트 1위팀, 국가대표 선발전 승리팀 등 총 3팀을 출전시킬 예정이다.

권정현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 커뮤니케이션 본부 총괄 상무는 "LoL e스포츠의 출발점이 된 유럽에서 대회를 열게 됐다. 올해 롤드컵이 더욱 감동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의 모습. 당시 유료 관객 4만명 기록을 세웠다. /라이엇 게임즈

올 가을 윈도 10 무료 업그레이드

MS 홀로그래픽 시스템도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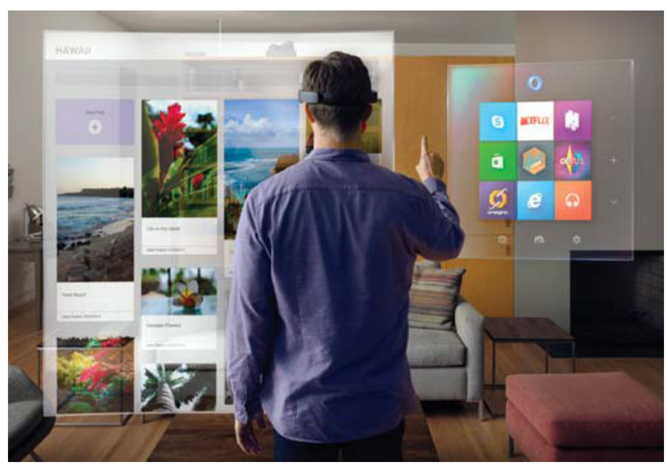
윈도 7, 8.1, 윈도 폰 8.1 사용자는 올해 가을에 출시될 예정인 윈도 10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MS의 OS 부문장인 테리 마이어슨 수석부사장(EVP)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 레드먼드 본사 사옥에서 열린 윈도 10 소비자 프리뷰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료 업그레이드는 윈도 10 출시 후 1년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무료 업그레이드 방침은 몇 년에 한 차례 윈도를 대규모로 업데이트해왔던 MS의 정책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를 따라잡으려면 짧은 간격으로 자주 업데이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MS는 이날 '윈도 홀로그래픽' 시스템도 선보였다. 윈도 10에서 작동하는 홀로렌즈는 머리에 쓰는 고글 모양 헤드셋이다. 이를 쓰면 고글을 통해 보이는 바깥세상의 물체들과 컴퓨터가 보여 주는 입체영상이 함께 보인다. 사용자가 홀로렌즈를 끼고 어떤 물체를 응시하고 있으면 이것이 커서 역할을 한다. 또 허공에 손을 들어 검지로 두드리는 자세를 취하면 마우스 클릭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 제품은 윈도 10과 비슷한 시기에 나올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km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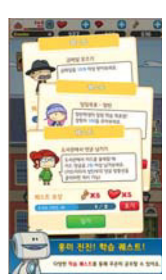
윈도 10의 홀로렌즈 사용 모습.

웹툰으로 영어 공부한다

웹툰으로 손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넥슨의 지주회사 엔엑스씨는 '2015 뉴(NEW) 캐치잇잉글리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영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캐치잇잉글리시(Catch It English)'와 인기 웹툰 '펭귄러브스 메브(Penguin loves Mev)'의 장점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우선'캐치잇잉글리시'는 소셜네트워크(SNS) 기반의 협동 학습과 게임화(Gamification)를 통해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2013년 출시 이후 별도의 프로모션 없이 누적 내려받기 45만 회를 기록했다. 2년 연속 네이버 앱스토어 베스트20에도 이름을 올렸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교육 부문 무료 앱 1위, 애플 앱스토어 교육 부문 내려받기·매출 2위를 기록 중이다.

이같은 캐치잇잉글리시의 인기는 네이버 연재 중인 인기 웹툰과 합쳐지면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엔엑스씨 관계자는 "'펭귄 러브스 메브'의 유머 넘치는 에피소드를 활용해 일상생활에 밀착된 생활영어를 빠르고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metro entertainment E

"남자 분위기 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첫 주연 영화 '강남1970' 한류★ 이민호



손깍지 팬 서비스 오글거리지 않아
男心도 잡을 것…흥행 신경 쓰인다

배우 이민호가 첫 주연 영화 '강남1970'을 통해 "남심을 잡겠다"고 각오했다. '강남1970'은 이민호가 남자 분위기를 풍기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린 작품이다.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 '시티헌터' 밖에 없어요. 이 영화를 통해선 남성들에게 호감형이 되고 싶습니다. 영화 편집이 한국판, 중국판 두 가지가 있어요. 여성 관객들은 중국 판을 더 좋아할 거예요. 한국 버전이 두 남자의 욕망 위주로 그려졌다면 중국 버전은 더 감성적이거든요."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조연 생활을 끝냈다. 이후 '개인의 취향' '시티헌터' '신의' '상속자들'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대표 한류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는 "'꽃보다 남자' 이후 많은 부분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가장 달라진 건 책임감이 커진 거다. 내 작품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아시안 투어를 하며 해외 팬과 소통한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손깍지' 팬 서비스다.

"손 깍지 끼는 건 '꽃보다 남자' 때 팬이 해달라고 해서 처음 했어요. 이후 하나의 문화가 됐죠. 저처럼 오그라드는 연기를 많이 해 본 배우도 없을걸요? 깍지 끼는 것도 전혀 오그라들지 않아요. 팬미팅에서 노래하고 춤 추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매년 저를 보러 사람들이 오니까 계속 똑같은 무대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리듬에 맞춰 살짝 몸을 흔듭니다.(웃음)"

한류 스타라는 인지도 만큼 캐릭터 중심으로 작품을 선택할 법 하지만 이민호는 '전체 메시지'를 중시하는 배우였다. '강남1970'에 대해서도 "강남이라는 소재 자체가 신선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현대적인 강남에 있는) 왕자 같은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아무 것도 개발되지 않은 강남을 배경으로 하는 데 끌렸죠. 그 시대, 없는 놈들은 끝까지 없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저를 꺼내 보는 계기가 되는 작업이었어요. '꽃보다 남자' 이후 주연의 역할과 책임감을 인식했죠. 흥행을 당연히 신경 써야 해요. '강남1970'은 첫 번째고 흥행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여야 하는 건 작품으로 인정 받는거예요."

이민호는 매 작품 특유의 깊은 눈빛 연기로 호평 받았다. 유하 감독도 그의 눈빛을 극찬했다.

"저도 제 얼굴 중에 눈을 가장 좋아해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눈을 보죠. 설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향이나 생각이 눈으로 표현된다고 봐요. 영화를 찍으면서 스스로도 몰랐던 저의 폭력성에 놀랐어요. 팬 사이트에 올라온 '상속자들'때 사진과 '강남1970' 이미지를 보니 차이가 크더라고요. 풋풋하고 어렸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노화했더라고요. (웃음)"

이민호는 매년 한 작품씩 하는 배우였다. 그러나 '상속자들' 후 영화 촬영으로 공백기가 생겼다. 그는 올해 영화·드라마를 통해 안방과 스크린을 동시 공략할 예정이다.

"욕심 같아서는 영화만 하고 싶어요. 배우로서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는 한류 콘텐츠 파워가 있으니까 책임감을 느끼죠. 올해는 드라마 한 개, 영화 한 개를 하려고요. 연말 즈음 드라마에 출연할 것 같습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star bag

악녀 이유리 싱글맘 변신



국민 악녀 **이유리**가 tvN 새 금토드라마 '슈퍼대디 열'에서 싱글맘 의사 차미래로 변신한다.

'슈퍼대디 열'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싱글맘 닥터의 아빠 만들기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상대 남자 한열은 이동건이 연기한다. '하트투하트' 후속 작으로 오는 3월 중 방송된다.



박칼린·바다 환상 입맞춤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과 가수 **바다**가 만났다. 바다는 최근 판타지 뮤지컬 애니메이션 '오즈의 마법사: 돌아온 도로시'의 OST '원데이(One Day)'를 녹음했다.

박칼린은 "원곡보다 우리말로 부르는 것이 더 돋보이는 노래"라며 "바다의 목소리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전했다.



엑소 콘서트 예매 서버 다운

그룹 **엑소**(EXO)의 콘서트 예매 경쟁이 치열하다.

22일 SM 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예스24에서 진행된 엑소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티켓 예매에 동시 접속자 120만명이 몰려 서버가 다운됐다"고 밝혔다. 콘서트는 3월 7·8일과 14·1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정용화 첫 솔로무대 환상적



밴드 씨엔블루 **정용화**가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솔로 무대를 최초 공개했다.

22일 '엠카운트다운'에서 정용화는 솔로 데뷔곡 '어느 멋진 날'·버벌진트와 함께 한 힙합곡 '원기옥' 무대를 선보였다. 정용화의 달콤한 목소리와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했다.

정체성 잃은 '엔터운서' 시대



기자 수첩
전 효 진
<문화스포츠부 기자>

아나테이너라고 불리는 연예인형 아나운서가 눈에 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나운서를 언론인으로 본다.

아나테이너가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인의 역할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아나운서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9년 여 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예능프로그램 MC가 아닌 고정 게스트로 활약하면서 아나테이너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자사 아나운서의 프리 선언이 잇따르자 각 방송사는 언론인다운 아나운서의 모습을 다시 지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활약을 보면 '엔터운서'라 할 정도로 역할이 주객전도됐다.

오정연·이슬기·정지원·정다은 KBS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연말 시상식에서 씨스타 '터치 마이 바디'를 불렀다. 무대 의상까지 따라 하며 핫팬츠도 불사하는 열정을 보였다. 장예원 SBS 아나운서는 수영선수 박태환과의 열애설로 대중에게 각인됐다. 아나운서의 본질인 진행 실력보다 파격 의상, 열애설이 더 부각된 셈이다. 방송 후 '뉴스 진행자가 아니면 상관 없다' '아나운서의 품위를 잃었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아나운서의 정체성은 종합편성채널 뉴스가 신뢰도를 얻으면서 더 혼란스러워졌다. 남자 기자·여자 아나운서가 한 팀인 지상파 뉴스 앵커의 조화가 무너진 것이다. 시청자도 외모보다는 내용이 꽉찬 뉴스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 이 같은 시대 변화에 한 종편은 자사 아나운서들을 기자직으로 전환시켜 사실상 아나운서 부서를 해체시켰다.

아나운서라는 직업군이 위태롭다. 아나운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청자와 TV 속 세상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돼야 한다. 전문 진행자로의 본질을 돌아보고 정체성을 확립할 때다.

인간적인 화가가 그린 인간적인 그림



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잠깐, 기다려봐. 누나가 더 따뜻하게 해줄게."

"누나 너무 따뜻하다. 매일 모닥불 피면 좋겠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들판에 남매가 있습니다. 저 멀리 소들이 보이는 걸 보면 아마도 남매는 일거리를 도우러 나온 것 같아요. 봄이 되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고 추운 겨울을 보내려면 누군가는 생산 활동을 해야겠지요.



카미유 피사로-서리가 내린 들판에서 불을 지피는 소녀/1887-1888/캔버스에 유채/92.8cmX92.5cm.

날이 너무 추워 발을 동동 구르는 동생을 대신해 누나는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앙상한 나무들이 땔감이 되어 남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네요.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카미유 피사로(Camille Pissarro/ 1830-1903)가 이 작품을 그릴 당시에 그는 점묘기법을 창안한 신인상주의인 쇠라와 폴 시냑크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대신 친구 따라 점묘화를 그린 셈이죠.

아주 작은 점들이 모여 주인공을 만들고, 들판을 만들고, 풍경을 만듭니다. 피사로가 찍은 모든 점들은 하나같이 따뜻하게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성이 좋기로 소문난 피사로는 인상파 화가들 중에서도 다른 화가들과의 우애도 좋고 유순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가장 인간적인 화가가 가장 인간적인 작품을 남긴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카미유 피사로의 작품으로 하루를 열며 다른 날 보다 좀 더 인간미 넘치게 보내볼까요?



설현　이연희　한효주

스크린 녹이는 청순 여배우들

'강남 1970' 설현·'조선명탐정2' 이연희·'쎄시봉' 한효주 色대결

최근 극장가를 찾는 한국영화가 여배우들의 청순한 매력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걸그룹 AOA 멤버 설현은 '강남 1970'으로 영화배우로 도전장을 내밀며, 청순함의 대명사인 이연희는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로 색다른 변신을 예고한다. 한효주는 '쎄시봉'으로 또 한 번의 '국민 첫사랑'의 탄생을 알린다.

설현은 21일 개봉한 '강남 1970'에서 전직 중간보스 출신 강길수(정진영)의 하나 뿐인 딸이자 주인공 종대(이민호)를 친오빠처럼 따르는 선혜 역으로 스크린 데뷔 신고식을 치렀다.

그동안 걸그룹 멤버로 무대 위에서 섹시한 매력을 주로 보여준 설현은 이번 영화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순수한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펼쳤다. 남자 관객으로 하여금 지켜주고 싶은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캐릭터다. 영화를 연출한 유하 감독은 "우리 영화에 맞는 청순한 얼굴을 갖고 있어서 캐스팅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순함을 대표하는 여배우인 이연희는 다음달 개봉하는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로 이전에 보여준 적 없었던 다채로운 모습을 연기했다. 극중에서 이연희는 주인공 김민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 혼을 쏙 빼놓는 묘령의 여인 히사코 역을 맡았다.

최근 공개된 스틸 속에서 이연희는 섹시함과 청순함, 우아함을 넘나드는 다양한 매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작에서는 한지민이 색다른 연기 변신을 보여준 만큼 이연희의 연기 변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3년 '감시자들'로 톱 여배우 자리에 오른 한효주는 내달 5일 개봉하는 '쎄시봉'으로 약 2년 만에 스크린을 다시 찾는다. 젊음의 거리 무교동을 주름잡던 음악감상실 쎄시봉을 무대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한 명의 뮤즈와 잊지 못할 가슴 시린 첫사랑의 기억을 그리는 영화다.

한효주는 극중에서 남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인물인 민자영 역을 맡았다. 그는 제작보고회를 통해 "국민 첫사랑 이미지를 원한다.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했다"고 솔직한 기대를 나타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해외 팝스타 내한공연 러시

마이클 부블레·에드 시런·노엘 갤러거·이디나 멘젤 등 줄이어

올 상반기 해외 유명 가수들이 연이어 한국을 방문한다.

재즈 보컬리스트 마이클 부블레는 다음달 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첫 내한공연을 개최한다.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마이클 부블레의 월드투어 '투 비 러브드 투어'의 일환이다.

CJ E&M은 "마이클 부블레는 첫 내한공연인 만큼 관객들과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총 100여명의 현지 스태프들이 입국해 최상의 무대를 꾸밀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은 3월 8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지난해 6월 두 번째 앨범 'X'를 발표해 미국 빌보드 차트와 UK 차트, 83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그는 "새로운 앨범으로 투어를 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첫 아시아 투어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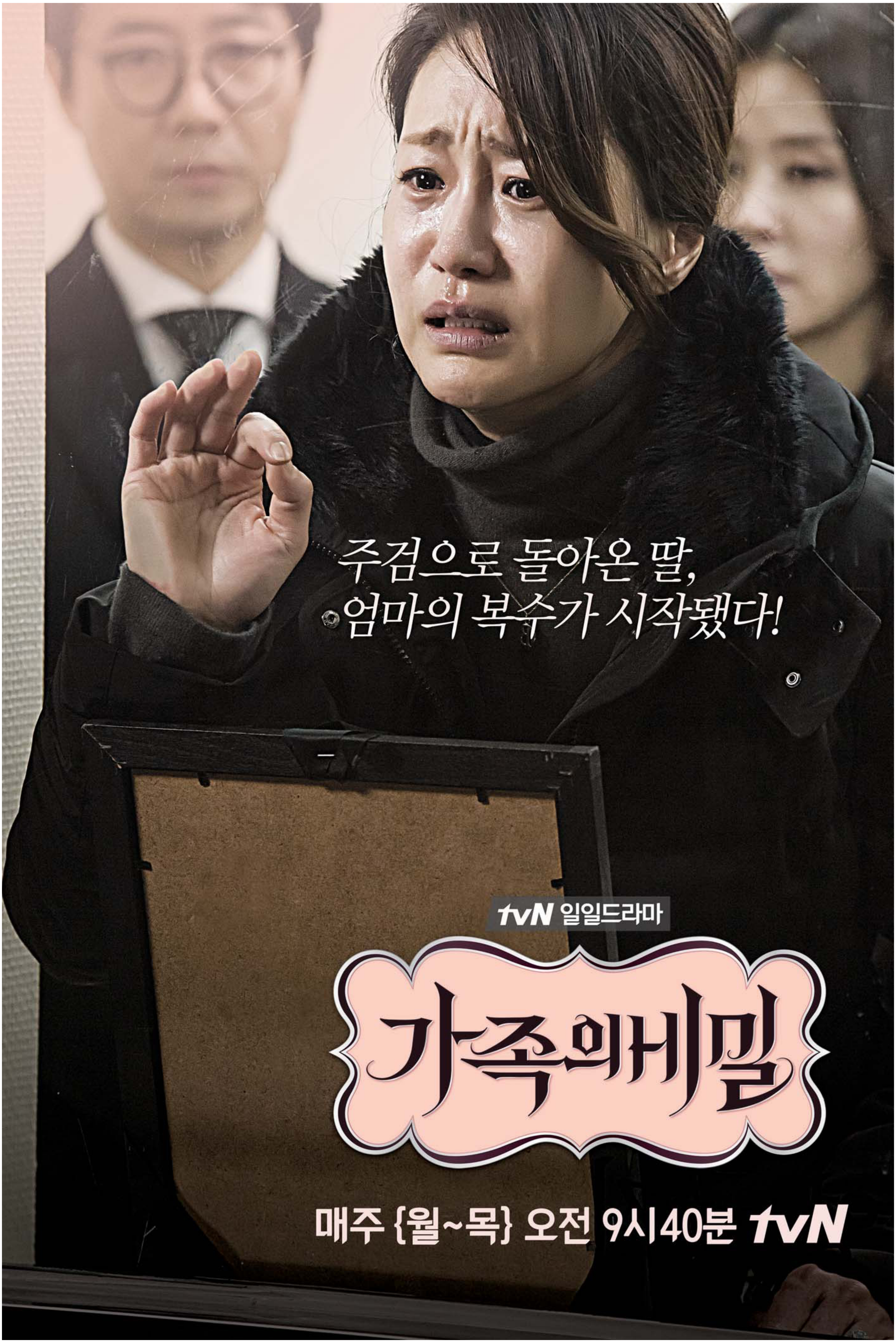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는 4월 3~4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시어터에서 자신의 밴드 하이 플라잉 버드의 새 앨범 '체이싱 예스터데이' 발매를 기념해 내한공연을 연다. 3년 만에 국내 팬들과 만남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OST '렛잇고'의 주인공 이디나 멘젤도 한국을 찾는다.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5월 30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국내 팬에 인사한다. '렛잇고'는 물론 '위키드' '렌트' '아이다' 등 뮤지컬 넘버를 열창할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



마이클 부블레　이디나 멘젤


주검으로 돌아온 딸,
엄마의 복수가 시작됐다!
tvN 일일드라마
가족의비밀
매주 {월~목} 오전 9시40분 tvN

긴머리 싹둑 이상훈 '두산맨' 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리는 두산 스프링캠프에서 투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 코치. /연합뉴스

코치로 프로야구 복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두산맨'으로 돌아온 '야생마' 이상훈(45)이 짧은 머리로 각오를 다졌다.

이상훈은 '친정' LG 트윈스가 아닌 '한지붕 라이벌' 두산 베어스 코치로 프로야구에 돌아왔다. 그는 21일(현지시간) 미국프로야구(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훈련장인 애리조나 주 피오리아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벌어지는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서 투수들과 친분 쌓기에 주력했다.

선수 시절 전매특허였던 치렁치렁한 장발은 사라졌다. 대신 변함없는 승리욕과 지금의 위치에서 전력을 쏟아붓겠다는 자세는 선수 시절과 다름없었다.

이상훈 코치는 "선수에서 지도자로 운명이 바뀌기는 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할 뿐이다. 고양 원더스에서 코치를 경험했기에 두산에 왔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것이 내 몫"이라며 "현재 선수들의 이름을 알고 팀이 추구하는 방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훈 코치는 "선수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도자로서도 나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인식을 남기고 싶다"며 "야구에서 감각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을 선수들에게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음으로, 느낌으로 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훈은 지난 1993년 LG에서 데뷔해 2004년 SK 와이번스에서 은퇴했다. '야생마' '삼손' 등으로 불리며 통산 71승 40패, 98세이브의 기록을 남긴 한국의 대표 왼손 투수다.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와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뛰었고 은퇴 후에는 록밴드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하기도 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행패 잘못이지만 일방적 매도 억울"

'배구 전설' 장윤창, 농구단 기물파손 사건 해명

왕년의 배구 전설이었으나 빗나간 자식사랑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된 장윤창(55·사진) 경기대 교수가 농구단 기물 파손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장윤창 교수는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인 매도를 당해도 되는 건지 분해서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장윤창 교수는 지난 17일 오전 3시20분께 아들 장민국(26)의 소속팀인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 단장실에서 휴지에 불을 붙였다 소파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단장실 밖으로 나와 사무실 입구에 놓여 있던 화분 2개도 깼다.

해당 사건은 장윤창 교수가 아들 장민국이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자 구단 측에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윤창 교수의 말은 달랐다. 그는 사건이 있기 전날 오후 6시 무렵 서울의 한 호텔에서 KGC 인삼공사의 조성인 단장을 만나 "아들이 다른 팀에 뛸 수 있도록 적합한 팀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장윤창 교수는 "KGC인삼공사에서 장민국이 포함된 트레이드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소문을 듣고 꺼낸 이야기였다"며 "사실 아버지가 나설 문제는 아니지만 아들이 상무에 들어가려면 경기에 뛰어야 했기 때문에 간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성인 단장 측에서 A 구단의 모 선수를 데려오면 장민국을 트레이드시키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장윤창 교수는 주장했다. 그러나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A 구단 감독으로부터 트레이드가 결렬됐다는 문자를 받자 조성인 단장에게 항의를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KGC인삼공사는 전날 장민국에게 시즌 아웃 처분을 내렸다. 일련의 사건으로 장민국이 마음을 다쳐 더는 경기에 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아버지의 사건으로 인한 일종의 페널티로 농구계는 바라보고 있다.

/장병호기자



류현진·아오키 韓日 투타 자존심 대결

아오키 샌프란시스코와 계약…다저스와 라이벌전 '흥미진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단골 매치업으로 손꼽히는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라이벌전이 올해는 보다 흥미로울 전망이다.

'코리언 몬스터' 류현진(28·LA 다저스)과 '안타 제조기' 아오키 노리치카(33·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한·일 투타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자유선수자격(FA)을 얻은 아오키가 진통 끝에 샌프란시스코와 1년 4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한국인 선발투수와 일본인 외야수가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라이벌 팀에서 경쟁하게 됐다.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16차례 맞대결을 펼친다. 일정상 류현진은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최대 5차례 선발로 나설 수 있다.

올해도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양팀의 경쟁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 시즌이 흘러가면 지난해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이 사용한 선발 로테이션 조정으로 1~3선발 클레이턴 커쇼·잭 그레인키·류현진을 샌프란시스코와 3연전에 투입하는 전략이 또 화제를 부를 수 있다. 류현진이 지난 시즌 샌프란시스코전에 자주 등판한 것(4번 등판)도 이같은 매팅리 감독의 치밀한 계략 때문이었다.

올해 류현진의 샌프란시스코전 첫 투구는 아오키를 향할 가능성이 크다. 야구 종가 미국에서 열리는 한일 투타 대결이다.

류현진은 일본 타자와 자주상대 하지 않았다. 맞대결 성적도 좋지 않았고 설욕의 기회도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국제대회에서도 캐나다, 쿠바 등 북미·중남미 강국을 주로 상대했다. 류현진과 아오키의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장병호기자 solanin@



르브론 제임스 득점마다 3300만원

작년 700억 NBA 최다수입

'킹'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가 지난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미국프로농구(NBA) 선수로 조사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2일 NBA 선수들의 지난해 수입을 조사해 순위를 매겼다. 제임스는 급여로 2060만 달러(약 223억원), 각종 후원 계약으로 4400만 달러(약 477억원)를 벌어 총 700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시즌별 평균



2116득점을 기록하기 때문에 1득점당 33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포브스는 "이미 나이키, 맥도널드, 코카콜라, 삼성 등 글로벌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던 제임스는 지난해 10월 기아자동차와도 계약을 맺으면서 수입을 더 늘렸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다음으로는 케빈 듀랜트(오클라호마시티)가 총 수입 5400만 달러로 2위에 올랐다. 지난해까지 9년 연속 1위에 올랐던 코비 브라이언트(LA 레이커스)는 4950만 달러로 올해 3위로 밀렸다.

4위는 3890만 달러의 데릭 로즈(시카고), 5위는 3050만 달러의 카멜로 앤서니(뉴욕)로 집계됐다.

/김민준기자 mjkim@

문제 많은 '문화재 안내 시스템'



권기봉의 **도시산책** <111>

강원도 원주에 있는 8세기 초엽의 불교유적 법천사지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차량 네비게이션에 '법천사지'라 입력하고 길을 나섰지만 네비게이션은 엉뚱하게도 잡초로 무성한 농로로 이끌었다. 결국 법천사지는 한참을 헤맨 뒤에야 찾을 수 있었다. 초창기 GPS 데이터를 측정할 때 생긴 오차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거나 그 데이터를 지도에 입히면서 오류가 생겨 발생한 문제로 보였다.

사실 비록 덜 알려진 문화재를 찾아다니다 낭패를 본 게 처음은 아니다. 국보나 보물 혹은 유명한 문화재가 아닌 한 네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온다 해도 법천사지의 경우처럼 정확하지 않은 안내를 하는 경우도 적잖다. 이정표에 의지한다 해도 찾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대로변에는 방향이나 거리 표시를 해두었지만 정작 작은 길로 들어서면 갈림길 등에서 적절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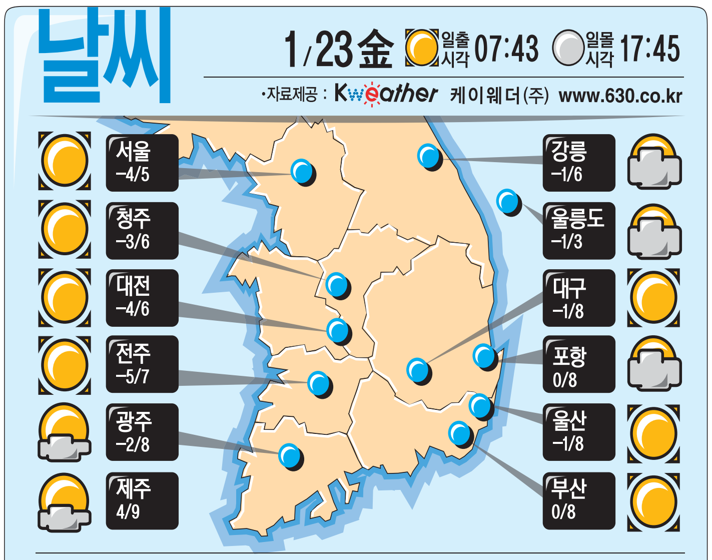
막상 문화재까지 잘 찾아간다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문화재 안내판의 설명 문구가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애매하고 심지어 내용이 틀리거나 맞춤법과 띄어쓰기조차 틀린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 그 문화재의 내력보다 정면 몇 칸 측면 몇 칸 하는 식으로 건축 구조에만 집중해 설명한다든지, 무얼 말하려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백과사전식 나열을 한 것들이 수두룩하다.

그렇잖아도 문제 많은 안내문구의 색칠이 벗겨지거나, 안내판 위를 덮어둔 유리판이나 아크릴판 덮개에 햇빛이 반사돼 안내문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내용을 떠나 안내판을 문화재에 바짝 붙여 세운 나머지 시선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

몇 해 전부터 서울 창덕궁을 시작으로 문화재 안내판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은 예산 문제나 담당자들의 문제의식 결여 등으로 전국적인 수준의 개선 움직임은 더딘 듯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로명을 기반으로 한 새 주소체계를 도입하면서 할 일이 배가 된 모양새다. 과연 문화재 안내판과 안내 시스템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난방과 환기 부족으로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면 코와 목의 점막이 민감해집니다.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평소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40중반 미혼녀, 일도 남친도 없어요
모태솔로 벗어나려면 기도 하세요

Q youmi 여자 70년 2월 7일 묘시생 음력

안녕하세요. 길을 잘못 들어 놨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70년생 2월 7일 묘시음력 생 여자 입니다. 거의 모태솔로구요 힘들군요. 제게 맞는 일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 운과 이성 운을 알고 싶습니다. 결혼 운이 없더라도 연애 운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좀 심하네요.^^ 부탁드립니다.

A 모태솔로의 단점 중 하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남자의 단순한 호의'에도 지레짐작으로 '이 남자가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다가 '이 남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남자를 다시 멀리 하면 남자는 당황스러워 하면서 여자를 떠나가게 되고 반대로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남자는 당황스러움에 다시 여자를 떠나게 됩니다.

서비스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나 직업의 기반이 약하여 장기적으로 가지를 않고 사람관계로 인해 접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기술을 습득하자니 주변에 의지할 곳이 없고 체력적으로 받침이 약한 게 진취력이 떨어집니다. 누구나가 작던 크던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노력이던 운이던 하나는 갖추어야 합니다.

상식적인 기운에서 보면 무엇보다 노력이겠지요. 그 다음이 운입니다. 그러나 운칠기삼(運七氣三)으로 보면 운의 역할이 더 많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명을 궁금해하고 운을 알고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는 경우는 말 그대로 횡재나 행운으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횡재라 하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인과의 법칙이 작용함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아닐 땐 어찌해야 할까. 그럴 땐 도와주는 손길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도와주는 손길을 우리는 가피(加被)라고 합니다. 가피를 구할 때 보통은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내면에 있는 선함을 이끌어내어 선한 자비심을 가진 기운의 도움을 받고 이러한 인연으로 나 역시 남에게 내가 받은 감사함을 되돌릴 때 공덕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오니 참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1			7			
8			9		4			
	2	7					9	
		9			5			1
	1	6				2	5	
2			3			9		
	7					5	1	
			7		1			6
			5			7		8

		2	6					1
	7	4			5	3		
				8				
	8			4				9
4	9						7	3
3				6			1	
				3				
		8	7			9	5	
7					4	1		

스도쿠 정답

5	9	1	6	2	7	8	3	4
8	6	3	9	5	4	1	7	2
4	2	7	1	8	3	6	9	5
3	8	9	2	7	5	4	6	1
7	1	6	4	9	8	2	5	3
2	4	5	3	1	6	9	8	7
6	7	4	8	3	2	5	1	9
9	5	8	7	4	1	3	2	6
1	3	2	5	6	9	7	4	8

9	5	2	6	7	3	8	4	1
8	7	4	1	9	5	3	2	6
6	1	3	4	8	2	7	9	5
5	8	1	3	4	7	2	6	9
4	9	6	2	1	8	5	7	3
3	2	7	5	6	9	4	1	8
2	4	5	9	3	1	6	8	7
1	3	8	7	2	6	9	5	4
7	6	9	8	5	4	1	3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인사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 ▲ 개인금융부장 최두연 ▲ 기업영업부장겸 RM 이내훈 ▲ 종합금융시장부장 박용식 ▲ 재무기획부장 고헌주 ▲ 인재개발부장 김구현 ▲ 여신기획부장 양규열 ▲ 기업여신지원부장 겸 부장심사역 박상철 ▲ 업무지원센터장 김희승 ▲ 금융개발부장 이명구 ▲ 소비자보호센터장 문용주 ▲ 비서실장 정용욱 ▲ 스마트금융센터장 김재성 ▲ 양재동 금융센터장 겸 RM 김성욱 ▲ 압구정중앙지점장 박성현 ▲ 논현동 금융센터장 겸 RM 김종남 ▲ 온양 금융센터장 겸 RM 이효선 ▲ 범일동지점장 방우건 ▲ 부평중앙지점장 전수동 ▲ 대전중앙 금융센터장 겸 RM 남상덕 ▲ 소공동 금융센터장 겸 RM 최동욱 ▲ 영업부장 이희수 ▲ 신한PWM 서울파이낸스센터장 이찬구 ▲ 분당시범단지지점장 조혜영 ▲ 과천지점장 박석희 ▲ 청주지웰시티지점장 정호철 ▲ 사북지점장 한연길 ▲ 테헤란로중앙 금융센터장 겸 RM 박충호 ▲ 광교 대기업금융센터장 겸 RM 김동하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아메리카신한은행 CA 지역본부장) 이건희 ▲ 인천국제공항지점장 전필환 ▲ 인사부 팀장(부서장대우) 용운호 ▲ 여신관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차기영 ▲ ICT 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이원종 ▲ 사회공헌부장 김희재 ▲ 신한PWM이촌동센터장 김회상 ▲ 가양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황영진 ▲ 강남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승욱 ▲ 칸치푸람지점장 장용호 ▲ 동해지점장 김근수 ▲ 대청로지점장 동용식 ▲ 개포동역지점장 김희철 ▲ 경기대학교지점장 김영준 ▲ 기업금융부 팀장(부서장대우) 손석호 ▲ 부산중앙지점장 박영호 ▲ 용원지점장 권웅 ▲ 내손동지점장 김승록▲ 복현동지점장 도건우 ▲ 명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김민수 ▲ 목동역지점장 이한원 ▲ 동탄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지온 ▲ 디지털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전형진 ▲ 신한PWM 대전센터장 최우창 ▲ 도봉동지점장 이동규 ▲ 분당구미동지점장 이규근 ▲ 지산동지점장 양석 ▲ 삼성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왕섭 ▲ 후평동지점장 유희준 ▲ 구미중앙지점장 장무현 ▲ 용전동지점장 최종민 ▲ 영도지점장 박상규 ▲ 신한PWM 분당중앙센터장 박기섭 ▲ 압구정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박종길 ▲ 온산 금융센터장겸 RM 전선우 ▲ 신한PWM 서교센터장 김은정 ▲ 천안법원지점장 김승덕 ▲ 동대신동지점장 정성엽 ▲이천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문동준 ▲ 무거동지점장 유성국 ▲ 순천법원지점장 문명길 ▲ 창원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봉균 ▲ 사상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선임 ▲ 천안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박규섭 ▲ 천호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유영주 ▲ 태백지점장 오세문 ▲ 양재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박정원 ▲ 포항남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장성덕 ▲ 학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남택수 ▲ 글로벌개발부 팀장(부서장대우) 윤준호 ▲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SBJ은행 본점) 황인하

■한국금융연수원

◇승진 ▲도서출판부장 유성호 ▲전산정보실장 이영대 ◇전보 ▲감사실장 권성원 ▲자격검정사업부장 전주수 ▲연수운영부장 박응서 ▲종합기획부 팀장 문영성 ▲총무부 팀장 정은선 ▲u-러닝부 팀장 김숙현

부고

▲ 이연수씨 별세, 신동진(한국아나운서연합회 회장·MBC 뉴미디어뉴스국 차장)씨 모친상 = 21일, 이대 목동병원 지하 2층 9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30분 02-2650-5121
▲ 정태영 씨 별세, 정세화(진인해운 상무)·진화(자영업)·인화(금융감독원 IT감독실장)·영희(주부)·회숙(수필가) 씨 부친상, 문옥영(건축업)·이용훈(현대중공업 상무) 씨 빙부상, 김명희(주부)·김경희(주부)·김수정(주부) 씨 시부상 = 21일 오후 4시, 부산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23-83), 발인 23일 오전 6시, 051-582-1041
▲ 김송자씨 별세, 김익순(삼경TMC) 윤순(운서건설) 재순(대웅제약 개발본부장)씨 모친상 = 21일 오후 11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3일 오전 11시 30분. 031-539-9446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

6개 부처 ‘국민행복’ 분야 올해 업무계획 보고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는 ‘국민행복’ 분야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2일 보고했다.

먼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태와 관련한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준비한다. 관계 부처 장관들은 금주 중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장관회의를 연 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포괄하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비율을 올해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CCTV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여야가 추진 중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 입시에서 인성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중학생 ‘자유학기제’도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확산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한류기획단’을 상반기 내에 출범시키고 2000억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한다. 게다가 저작권보호원과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등을 설립해 문화 인프라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경력단절 주부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557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을 대폭 늘리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유해물질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선풍기 등 중형제품으로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3개월~1년 전에 채용기준을 공개토록 하고 민간기업도 자율적 참여를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업계와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계와 소프트웨어 등 10개 분야에서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모델링과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일·가족 양립 제도를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서울시는 법 개정 후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최대 수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학대 1회라도 폐쇄

서울시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서울시가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는 어린이집을 즉각 폐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26곳과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곳을 연계한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가 운영된다. 또 센터마다 학대 예방 전담 직원이 배치되며 아동과 교사 간 갈등사례 매뉴얼도 보급된다.

특히 시는 1회 학대행위라도 발견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는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고 방문간호사가 아동학대 예방 순회보안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게다가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상시개방 원칙’도 마련된다. /황재용기자



통영시 ‘출렁다리’ 개통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와 만지도를 연결하는 ‘출렁다리’가 22일 개통됐다. 이 다리는 사람만 건널 수 있는 보도교로 길이 98.1m, 폭 2m의 현수교다. /연합뉴스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

개인 위생수칙 철저 당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했다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14명으로 유행주의 수준인 12.2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플루엔자가 유행 중이다.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재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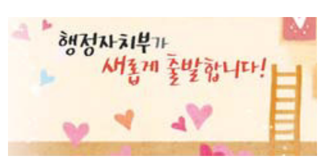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인터넷창구 단일화

행자부, 전자정부 37개 사업에 1215억원 지원

소관 부처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웹사이트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창구가 단일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37건에 1215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주요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소비자 피해구제 일원화 창구 ▲긴급전화 통합서비스 제공 시스템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범정부 클라우드 통합전산 환경 ▲정부 의사소통채널 통합 구축 ▲종합



/행정자치부 블로그 캡처

취업정보·연관교육 포털 ▲범죄이력 증명관리 시스템 ▲과세자료와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전체 예산의 약 63%는 소비자 피해구제 온라인 창구 일원화사업 등 부처간 연계·협업이 필요한 ‘정부3.0’ 사업에 배정됐다. 또 행자부는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와 다양한 통로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옴니채널 서비스’ 등이 가능토록 해 전자정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역의 자영업 현황과 유동인구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공간 정보도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돼 예비 창업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3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5년 전자정부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

일제 강제동원 2091명 신원 확인

정부가 작성한 가장 오래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명부’를 분석·검증한 결과 강제동원된 209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정시피징용자 명부’를 검증한 결과 수록된 5157명 중 2091명을 확인해 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제동원 명부에 등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명부는 이승만 정부가 지난 1953년 피해신고를 모아 만든 것으로 피징용자 명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명부는 재작년 6월 주일 한국대사관 신축과정에서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와 ‘3·1운동피살자 명부’와 함께 발견됐다. /황재용기자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내란음모는 무죄… 대법 "RO 존재 입증 증거 부족"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30여 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 또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으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어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는 진보·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판 시작을 앞둔 오후 1시부터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 명과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등은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석기 전 의원 등 구속자 7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반면 이 자리에서 200m 떨어진 서초역 사거리에서는 보수단체 회원 1000여 명이 맞불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대법원이 이 전 의원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도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선고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문경경찰서는 40대 부부가 귀촌 이틀만에 집에서 숨진채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귀촌 40대 부부 '의문의 사망'

입주 이틀 만에 숨져… 외상·유서 없어

경북 문경으로 갓 귀촌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경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35분께 문경시 농암면의 한 주택에서 A(48·남)씨와 B(40·여)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설치기사가 인터넷 선을 연결하기 위해 이 주택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작은 방에서 엎드려 있었으며 B씨는 입에 거품을 문 채 거실에 누워 있었다.

경찰은 외상이나 유서,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어 자살이나 독극물에 의한 타살, 사고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또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경기도에서 살다가 지난해 8월 귀촌한 뒤 2층 주택을 지어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에 입주했다. 또 B씨의 친정이 문경이라 이곳에 터전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용기자


중국, 이젠 바다까지 중국에서 서식하는 해초류인 '모자반'이 전남으로 밀려들어와 신안군 흑산면 비리마을 양식어가들이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전당포 턴 상근예비역 붙잡혀

충주경찰서는 전당포에 침입해 주인을 폭행하고 1억원어치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육군 상근예비역 병사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달아나는 상근예비역 병사들. /연합뉴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7시45분께 충주의 한 전당포에 침입해 주인 장모(85)씨를 때려 눕힌 뒤 1억3000만원어치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1분만에 장씨를 쓰러뜨리고 현금 등을 가방에 넣고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 중 2명은 지난 16일에도 이 전당포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겁이 나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군 헌병대에 이들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5만원권 1억 위조한 일당 검거

위조지폐 제작자에게는 구속영장

5만원짜리 지폐 1억원어치를 위조해 사용한 일당이 검거됐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 2000여 장을 위조해 이를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전주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허모(34)씨와 박모(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씨에게서 받은 위조지폐를 담보로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정모(48)씨도 구속했다. 게다가 경찰은 이들에게 위조지폐를 제작해 판매한 심모(40)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와 정씨는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였다. 채권자인 정씨로부터 "위조지폐 1억원어치를 구해주면 빚 2500만원을 없애주고 제작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허씨는 같은 조직에 있던 박씨와 함께 위조지폐 제작을 계획했다.

허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문서위조 카페 관리자인 심씨에게 80만원을 주고 5만원권 위조지폐 1억원어치를 구입한 뒤 지난 15일 정씨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위조지폐를 서류가방에 담은 뒤 평소 거래하던 금은방 주인(73)에게 "사정이 있어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 3일 뒤 찾아가겠다"며 3000만원을 빌렸다. 금은방 주인은 멀쩡한 돈을 맡기고 돈을 다시 빌려가는 것을 수상히 생각해 맡긴 돈을 자세히 확인했다. 돈 모양이 위조지폐라고 직감한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심씨는 2010년부터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문서위조 카페를 운영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선준기자 rsunjun@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소환통보

이재명(51) 성남시장이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청소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시장에게 오는 2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 시장은 의혹을 제기한 한 일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 신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이다.

이 신문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 시장과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의 야권연대 이후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 성남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2012년 5월 보도한 바 있다. /유선준기자